朝鮮日報
夕刊 十四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漸次로壓制를排除 明朗한氣分普及

自由的인憲法改正草案好評

大田駐蘇大使縱橫談

【東京電話同盟】大田駐蘇大使는 在任四年 今回에 勇退하기爲하야 十三日午後七時四十五分 東京驛着列車로 歸國하엿는데 大使는 車中에서 蘇聯邦의 現狀及 日蘇關係의 全般的問題에對하야 左와如히 極히 自由롭고도 率直하게 注目할만한 縱橫談을 試하엿다

蘇聯邦이 漸次 壓政을 排除하고 明朗한氣分이 國民一般에 普及되여오는것은 看過할수업는事實이다 或者는 資本主義에로의 退却이라고하나 今日의 蘇聯邦은 유토피아式或은 机上空論的 共產主義보다도 現實社會에 則한것으로自然法則에 背馳되는것은 統治의 必要上 不得已하다하야꾸준히改革을 斷行하고잇다 憲法改正草案이나 自由를賦與하는點은 國民의 評判이조코도 國民의支持를 밧고잇슴으로今秋의 蘇聯邦大會通過는 確實하다

歐洲政局에잇서 蘇聯邦의 地位는 强固하고 聯盟을 根據로大活躍을試하야 西班牙內政不干涉을 條件으로 新海軍條約로로會議等에도 出席又는 參加招請을바더 큰發言權을 가지고잇다 歸國을압두고 約十七日에 亘하야 南蘇方面을 視察하엿는데 이흡수업는것은 前後三個年 日本을 硏究하엿다 은 사내가잇서 只今에는 훌늉한 製茶業을 經營하야 非常히 良好한 茶를製造하야國民의 需用에 應하고잇다 北鐵物商들도 支拂하는 日本茶는 不良하야 日本商들의「사면라다主義」로서는 안될것이다 라고하면 반드시 良好한 茶를만드러 日本茶의 聲價를 海外에發揮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고 思한다 (寫眞은 大田氏)

駐蘇大使後任은 重光葵氏로內定

【東京電話同盟】大田駐蘇大使는十三日에 歸東하얏는데 同大使는 일즉 後進에길을 讓渡하기爲하야 勇退할希望을 表하엿슴으로 有田外相도 今回의歸國을機會로 同大使의希望을 容認하야 駐蘇大使의 更迭을 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有田外相으로서는 後任大使의 人選에對하야 먼저大田大使의 意向을 聽取할方針인데 大體 前次官重光葵氏를 起用할 方針인바 駐蘇大使의 後任에는 廣田外相當時 重光次官을 起用하기로內定하엿섯스나 某方面의 反對로 마침내 中止하게되여 重光氏는次官을 辭하고 不遇한 地位에 立處하게되엿든것이다 外相은 這般의 事情을 考慮하야 爲先重光氏를 駐蘇大使에 起用하게될것이다 重光氏는 外務省唯一의中國通이오 多年次官으로 滿洲事變後 外交難局에 善處하엿고 其外交的手腕은 이미 알려잇스므로 對中政策과함께 微妙한 關係에잇는 對蘇外交에 同氏의 大使起用은 大蠢適任이라고 觀測되다

藏相、各閣僚와 個別的折衝開始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明年度豫算編成을 圓滑케하기爲하야 國策閣議再開에앞서 各閣僚와 個別的折衝을하기로되어 이미 法相、商相、內相、拓相과會見하고 또 十三日午後는 平生文相과 會見하야 各省要求의 國策案에 關하야 說明을 聽取하는同時에 藏相은 財政의 大體에 關하야 說明하야 各閣僚의 參考에 供하엿다 그런데 藏相으로서는 可及的 今週中에 各閣僚와의 個別的折衝을 마치고 各大臣이 讓步할수잇는 限度를 본다음에 來週부터 第二段工作을할 意思를 가젓는데 이結果에依하야 廣田首相及 三長官과도 協議한後 閣議進行順序를 定하게 될것이다 藏相으로서는 明年度豫算編成의 最大難關이 陸海軍豫算에 잇는것은 疑心업는바이나 陸海軍兩大臣에 對해서는 特히 愼重한 態度로서 政治的折衝을 할터이다

永野、小川兩相 會見內容

【東京電話同盟】永野海相은 急施를 要하는 燃料國策案과 이具體的 實行方法에 關하야 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小川商相과 約三十分동안 海軍省大臣室에서 會談하얏는데 小川商相은 永野海相에게 對하야 商工省에서立案한 燃料國策에 關한具體案에 關하야 詳細히 說明하고 海相도 海軍當局의 重要意見을 開陳하야 國策案의 大綱及 이實行方法에 對하야 完全히 意見一致를 보게되엇다 永野海相은 [illegible] 石油國策의 中心이되는 石炭液化에 關해서는 特히 [illegible] 的 生產能力을 가진 [illegible]을 附屬케할 官業의 一大[illegible] 研究機關을 新設하야 石炭液化의 技術向上과 同工業의 將來에의 飛躍에 資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되겟다[illegible] 하야 小川商相을 激勵한바잇섯다 따라서 右燃料國策及 이實行方法에 關한 具體案을 드되어 近近閣議에 提出하기로되엇다

藏相의準備工作 依然進捗難

首相의裁斷如何重視

【東京電話同盟】革新國策을 中心으로한 閣內의 對立은 各閣僚의自說을 固持不讓하고 去益紛糾를 招來하야 收拾하기困難한 狀態에處하게되엿슴으로 前途는 全然逆睹키困難한 狀態에 陷하엿다 廣田首相은 [illegible] 馬場藏相에게 命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國策을 決定하야 其工作에 着手케 하엿슴으로 馬場藏相은 마친내 實際的으로 準備工作에 進出하야 爲先十三日 林法相 永田拓相 平生文相과會見하고 各其各相이 提出한 革新國策에 關한 意見을 聽取하는同時에 財政當局으로서의立場을 說明하고 兼하야 要求하야 이를基礎로 軍部以外의 國策에 對한 財政의 見解를 세우는 同時에 最大困難인寺內 永野兩軍部大臣과의 會見에서 最後的妥協을 途하기爲한 參考에 資케하기로되엿는데 十三日 各相과의 會見結果는 馬場藏相이 當初에 期待한바와가티는 進捗되지안코 各相은 前上 自省提出國策의 實行을 期하야 不讓하고 其提出意見은 조곰도 緩和치안흠으로 結局 單純히 聽取하는 程度의 會見으로 終了하고 何等收穫을 엇지못한模樣인데 果然 이러한狀態로는 軍部大臣과 會見하드라도 無意味하다고보아 財政見解에 對한 藏相의方針은 完全放棄치안흘수업게되엿다 그런데 一方 軍部大臣은 國策決定은 一日이라도 遷延을 不許한다하야 政府에 對하야 [illegible] 寺內陸相은 [illegible] 主張實現에 邁進하고잇는바 [illegible]의 大眼目으로 革新國策樹立을 聲明하엿든만큼 廣田首相은 全혀自身의 立場에 處하게되여 [illegible] 往再時日을 보내는 [illegible] 內閣의 [illegible] 一大決意 [illegible] 잇슴으로 廣田首相은 [illegible] 下에 斷乎한 [illegible] 면 [illegible] 觀測되는바 首相이 [illegible] 을 나타낼는지는 [illegible] 잇다

陸軍에對해 來週中意見表示

【東京電話同盟】去月寺內陸相으로부터 廣田首相에게 提出한 陸軍의 國策四項目에 對하여는 目下 다른國策과가치 三長官間에서 審議中인데 陸軍에서는 늣저도來週中까지는 三長官又는 廣田首相으로부터 前記陸軍案에 對한何等의 意思表示가잇스리라고 期待하고 特히 國防充實은 勿論 無任所大臣의 設置와 綜合國策企畫機關의設置及 民間航空事業機關을 省組織으로 하는點等은 어데까지 其實現을 期하고잇다

第三種所得稅 十一年度豫想

十一年度의 第三種所得稅徵稅에 對하야 全朝鮮各稅務監督局의 豫想이 最近集計되엿는데 그 數字는 左와如함

	十一年度豫想	十年度實績
		萬
京城	三〇〇萬圓	二八四、二
光州	九五	九三、三
大邱	一二七	一二四、〇
平壤	一〇六	九四、七
咸興	五七	五二、三
計	六九〇	六五四、五

即景氣의 好轉은 所得稅의 收增四十萬圓을 齎來할것이다

村山稅務課長은 來八月十五日 京城發三週間豫定으로 朝鮮經由新京、奉天、哈爾賓大連各地의 稅關事務視察을 行하기로되엿는데 同氏의 渡滿은

一、北朝鮮에잇서 共同稅關의協議

一、陸接貿易에 關한事項安協

一、關稅制度에 關한安協

等諸般事務를 協議할것이다

李白兩氏의 態度强硬으로 和平交涉遂停頓

陳誠氏廣州에軍事會議召集

對廣西作戰方策熟議

【廣東發】中央對西南의 妥協交涉停頓으로 廣西省境의 形勢는 俄然 緊張되여 廣東當局에 入電한바에 依하면 湖南으로부터 廣西省境을 突破한 中央軍은 全州에 肉迫을 加하면서 湘陽 萬城 富川一帶의 廣西第十五軍先鋒은 江華 永明方面의 湖南軍 陶廣 李覺의 兩師와 六日 前哨戰을 하엿다한다 廣西幹部의 午前十時 第四路軍總司令部에서 中央廣東軍에 首腦部를 網羅한 軍事會議가 終了되는同時에 廣西軍은 一齊히 前線으로 出動하고 南寧에서는 學生 民衆團의 抗戰데모가 擧行되고잇는바 李白兩氏의 强硬態度로 鄧世增의 南寧訪問도 何等具體的結果가업는 模樣이다

【廣東發】陳誠 余漢謀는 七日 軍事會議를 開催하고 約二時間에 亘하야 對廣西作戰을 協議한結果 中央軍後續部隊六、十、八十三、九十八의各師를 兩江及 兩廣省境에 增援하는 同時에 中央軍第六飛行隊 十六機를 韶關에出動식혀 西江上流의 警戒에當케 하기로 決定하엿다 李白兩氏의 强硬한態度에 憤慨한 中央側은 陸空兩軍으로서 廣西에 對하야 大規模의 威嚇行動을 開始하리라고 觀測된다 (寫眞 右로부터 李宗仁氏 白崇禧氏)

廣西死守를決意

李、白兩氏蔣氏會見拒絶

【廣東十三日發同盟】李宗仁、白崇禧兩氏는 蔣介石氏로부터 會見申請을 바든데 對하야 『病體로 赴粵키 難하다』고 拒絶하여왓다 南寧來電에依하면 李白兩氏는 十一、十二兩夜徹宵協議한 結果 어데까지 廣西死守를 決意하고 前線部隊에 中央軍攻擊에 對하여는 即時 應戰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

內務省局部長會議

【東京電話同盟】內務省에서는 十三日午後三時半부터 內相官邸에서 局部長會議를 開催하고 潮內相 湯澤 鍋島兩次官 所付參與官 廣瀨社會局長以下 各局部長이 出席하야 左記事項을 協議하고 六時에 散會하엿다

一、內相은 九月三十日頃 大演習에參與키爲하야 北海道에出張하고 次期議會에提出할 法律案 其他重要事項은 內相出發하기前에 充分 檢討할것

一、內務省官吏로 하여금 滿洲國을 잘視察할것 먼저 第一回視察로 神社局長及 書記官一名 事務官一名을 派遣할것

一、各局部長은 各府縣에 잇서 主管事務의 觀察을 勵行할것

一、地方廳에 勤務하는 高等官(現在四十名)을 詮衡하야 優秀한 者數名을 內務省에 採用하야 人材登用의 途를열것

會寧兩司令部 自八月十五日開廳

朝鮮軍司令部發表 會寧飛行團司令部는 八月十五日부터 開廳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鮮于日氏(間島日報社長)十四日午前二時半 龍井村에서 別世享年五十七歲

◀李埼鎔氏 十四日貞洞一八自宅에서[illegible]

八面鋒

◇本社의探險團 十三日로서 白頭聖峰의頂上 天池에安着。

◇積雪一寸의壯觀을 傳書鳩가報來, 快哉 編輯局內에도 不知中萬歲의喊聲이일어난다。

◇水魔는 漢江에서 洛東江으로 三浪津附近에 또水害。

◇旱炎로移秧이늣고 水災로 田畓을流失하고 旱炎으로 生靑이 不良하고、今年의年事도걱정。

◇『蘇聯의軍備는 防衛的이오 侵略意思는絕無하다』、日蘇開戰說流行은不可解라는 歸途의大田大使가말햇다。

◇但、大使館使用人과 領事館員을 檢擧한事實을 알기前의觀察이겟지。

各委員決定

政友會幹部會서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十三日午後一時부터 本部에 幹部會를 開하고 安藤幹事長으로부터 北海道會議員 選擧의結果에 關하야 報告가 잇슨後 政府의各委員會에 對하야 如左히 各委員을 보내기로 決定하고 同三時 散會하엿다

◀重要產業統制委員 堀切善兵衛 加藤粂四郎

◀度量衡調查委員 武田德太郞 松村光三 西村茂生 田尻生五

◀國產振興委員 生田和平

◀不當廉賣審查委員 田邊七六

◀自動車工業委員 植原悅二郞

◀石油業委員 中村嘉壽

◀法律審議會委員 熊谷直太

◀神宮境域擴張委員 濱田國松、出井兵吉

新總督總監의 送別午餐會開催

【東京電話同盟】廣田首相은 南新朝鮮總督 大野同新總監을 招待하고 十四日正午 官邸에서 送別午餐會를 開催하고 廣田首相以下 各閣僚가 出席하야 먼저 廣田首相으로부터 南大將의 朝鮮總督就任에 對한 祝辭를 述하고 이에 對하야 南總督의 謝辭가잇슨後 歡談을 交하고 午後一時半 散會하엿다

白頭聖峰攀登의壯圖遂實現

白雪皚皚한天池邊 悟寐의白頭靈姿!

雲下一度의雪寒으로幕營은不得已中止

山頂에서 本社特派員 李相昊 發電

本社探險隊通信

【十三日午後二時白頭山頂發傳書鳩便=三長中繼】본사탐험대일행은 십삼일오후二시 드듸여 밤낫으로꿈꾸고잇든 백두성봉을 정복하엿다 아니참곤하엿다 무두봉을떠나며부터 도중에서는 구름과안개가 잔뜩껴서 안개가맥키여마음것 하계(下界)를 내려다보지못함은 천추의유감이다 백두정상에는 십이일밤이래 눈이한치이상이나 와싸히여 성지의경치는 무어라고 형언할수업시웅혼장엄(雄渾莊嚴)한맛이잇스나 다만유감인것은 눈이싸히여 위험할뿐더러 긔온이령하일도나되여 천지(天池)와 송화강구(松花江口)에 내려갈수가 업슴이다 한울머옴고 부득이 정상에서의막영을중지하고 되돌아 무두봉으로 회정하야 오늘밤은무두봉에서 막영할예정이다

春花秋實同開結

無頭高原花海相

植物學者間의論爭一幕 不知中옷깃염인團員들

【十三日午前五時無頭峯發傳書鳩便 三長中繼】마적의출몰로라하야 가장위험구역으로 보고잇든 신무성(神武城)에서 지루한 하로밤을새운 일행은 십이일아츰여섯시반에 신무성을출발하야 무두봉(無頭峰)으로 향하엿다 이코-스는 십팔키로밧게안되는 가벼운 행정이다 떠난지얼마안되야 바른편삼림속에 거문벽돌이 산가티 싸히어잇는것이 보인다 이 벽돌을 중심으로 로서아가 극동(極東)진출을 목적으로 활약경영하든 유적이라는둥 어떠중국사람이 자긔딸을위하야 절을지으려고 하든것이라는둥 여러가지 전설이만타 이지경에서부터는 지금까지 거처오든곳과 달러저서 눈이실케보히든 락엽송(落葉松)은보히지안코 한놉음 짙흐른듯한전나무가 웃뚝웃뚝소사더욱더욱장엄한맛이 더해진다 이로부터는 참말로 고산(高山)지대식물인 태루(苔類)식물이 땅을덥허지금까지의 고원지대와는 별천지로서 계곡도잇고 지형이 예각(銳角)적으로 되야 금강산(金剛山)의경치의규모를 좁혀크게 한감이잇다 약삼리가량의성곳한 울창한 삼림이 [illegible] 빗을쓸럼이 파도치는듯밧든로나가니삼림저쪽에는 백두의성용(聖容)이희두름사이에 엄연히 소사잇다 참으로 굴시자그대로 장엄할뿐이다 일행은 누구의하라는말도업시 스스로가 다가리 옷깃을 가다듬고 머리를 숙이엿다 얼마쯤더 행진을 계속하니 부석(浮石)이 질비하게 깔린곳이 나오다 이 지대를 지나니 또다시 광활한 고원지대가 나오다 심산자운영(深山紫雲英)들국화 심산갈대가 섞겨피어빗고음을 다투고 잇크는 자을날세로서 명랑하기 짝이 업다오갓풀과나무는 제봄을 마진듯하다 봄과 가을을 한꺼번에 마진듯한여름의 무두봉에 도착되때는 오후한시엿다 무두봉은 해발일천구백 이십구메돌이나 되는놉흔지대로서 한낫에 섭시 십일도의 추위이다 고산 식물들채집하는라고 점심도 채먹지안코야만법석들을한다 『말깃』 열매가 독이잇다는둥 업다는둥 식물학회(植物學會)간사인장형두(張亨斗)씨와 단외참가자인 식물선생 모씨와의사이에 대론쟁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학술탐험단의 의의를 긴게하야 일행은 그들의론쟁을 경청하엿다 오늘은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인 천지(天池)에참근하는날이다 어제밤에는 비바람이몹시심하엿든만큼 오늘날세도 아직은알수업다 일행은 하나도 아모사고도업시 자운(紫雲)가원성하하야 서로 깃버하며 용약전지를향하야 출발하엿다

(寫眞上은 無頭峰가는 山谷 下는 天池)

蘇聯의平時兵力 二百萬을超過!

蘇徵兵適齡引下에對한獨批評

【伯林十三日發同盟】蘇聯政府가 徵兵適齡의 引下를 斷行한데 對하여는 獨逸政府도 衝擊을바든模樣인데 政府의 機關新聞은左와如한 評論을 나리고잇다 蘇聯政府는 今回 徵兵適齡을 從來의 二十一歲로부터 十九歲로 引下하게되엿는데 이結果 赤軍의 兵力은 一割五分을 增加하야 平時常備兵力만으로 二百萬을 超過하게되리라본다 더욱西班牙의 內亂을 中心으로 國際情勢가 漸次重大化하는此際 蘇聯政府가 今回의 措置를取하게 되엿슨은 實로 意味深重하다 昨今國際情勢가 惡化하여잇는 此際 蘇聯政府는 現狀으로 滿足치안코 더욱國際不安을 增大할意圖인듯하다 蘇聯政府는 防禦的見地에서 赤軍을 强化한다고하나 이言明을 그대로 首肯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하다

納凉大放送

★오케-專屬藝術家★高福壽★李銀波兩氏의納凉放送★

今夜 八時半부터

放送曲目

◇金陵人詩 文湖月曲 압강물흘너흘너 李銀波

◇金陵人詩 孫牧人曲 울며새우네 高福壽

◇朴英鎬詩 文湖月曲 꼿각시 李銀波

◇朴英鎬詩 孫牧人曲 密月의大同江 高福壽

◇朴英鎬詩 孫牧人曲 채란새 李銀波

◇朴英鎬詩 孫牧人曲 故鄕은눈물이나 高福壽

◇金陵人詩 金松圭曲 봄소식 高福壽 李銀波

오케-레코-드

一二三

땀、먼지、에 더럽힌皮膚、露出하는 機會가 만흔여름을 念慮업시 皮膚菌의 巢窟이됩니다、恒常 『一二三』의常用을 잇지 말고

皮膚病治療에 外常備藥

主効 옴、음낭옴、무좀、태독、백선、완선、쇠버짐、부롬、땀띄、진무른데、濕疹頭瘡、切傷、火傷

全國有名한藥店에잇다

東京市神田區 師岡天然堂

NO.134

千壽 고가루 商標 金子壽商店 時備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利益마흔本業副業으로男女小兒老人近間에 自宅에서 休業、業書로申込하면 無料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鋪

恩給 長期據置 他에比較無有利 特色乞照會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丸善テント商會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八〇一

金銀 金銀賣買 合資會社

收益多大 人蔘、靑布 高橋清商店

大活劇 流線怪盜列車中藏 大活劇 雪崩의爆破 現代劇 ぬき足さし足 第一劇場

人命損害二百六十五名 罹災民은六萬五千名

家屋被害萬二千餘戶 田畓被害百五十萬圓以上

十道水害의集計 十四日午後一時現在

철일중순이래 전조선에빼친 수해에대하야는 각도 경찰부의 보고에따라 강원도(江原道)의 일부를 제외하고 거위 그 피해의 전모가 판명되엿다 십사일오후한시현재로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등 합계 이백륙십오명이고 가옥의 피해는 도괴、반괴、류실 침수등 합계 일만이천칠백륙십구호이다 그밖게 교량 전답의 피해는 막심하야리재민은 약 륙만오천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일백오십만원을 넘는모양이다

十四日正午現在 各道別水害狀況

道別	人 死者	負傷	行方不明	家屋 倒潰	半潰	流失	浸水
京畿	二	—	—	一四七	—	一〇六	四、一三五
忠北	二四	一四	一八	二三六	一一七	二〇八	一、三八五
忠南	—	—	—	三	—	—	二八〇
全北	一	—	—	一	二	—	三一〇
全南	—	—	—	—	—	—	六三
慶北	八	三	二	九六	二八	—	一、一〇八
慶南	一五	四一	九	一六	一九	—	五三三
平北	一	—	—	—	—	—	一
江原	六七	三九	一一	四四六	—	—	一、九四六
咸北	—	—	—	八	四四	—	一、三三〇
合計	一二七	九二	四〇	八八八	三九一	三七一	一一、〇七九

이외에 교량(橋梁)류실이 삼십사개소 전답의 침수가 일만일九천삼백이십사정보에 달한다

洛東江堤坊決潰 勿禁一帶九百戶浸水

【釜山支局特電】락동강물은 점점부러서 십사일 오전다섯시반에는 드디여 위험수위인 구포(龜浦)에서 오미돌오십을 돌파하엿다 이때문에 삼랑진(三浪津)아래쪽 락동강제방 약백미돌이 터저서 량산군(梁山郡)물금(勿禁)에는 민가 구백호가침수되엿다 리재민 사백명은 안전지대로피란하고잇다

京釜線一時不通

三浪津驛構內의堤防이決潰

수일이래남조선지방의 호우와함께 락동강(洛東江)물이 작구불어가는통에 경부선 삼랑진역(三浪津驛)구내 신호기(信號機)부근철로둑삼십척미돌이 허무러지면서 처자천(妻子川)다리의 교각(橋脚)과 교각 사이가 흘러떠나려가고 말엇다。

이때문에 십사일오전일곱시사십오분경부본선은 불통이되는동시 전날밤인 십삼일 오후열시오분경성역을떠난 제사렬차는 밀양역(密陽驛)에서 부산(釜山)을떠난 제사십렬차는 원동역(院洞驛)에서 각각 멈추고 잇다가 림시책으로추진식(推進式)방법을써서 오후령시 십팔분부터겨우 개통을보게되엿다

推進式으로開通

混雜한"따이아"京城서連絡

경부선원동삼랑진 사이가 수해로 불통되엿기때문에 그선의 "따이아그람"은 뒤범벅이 되엿다。현장은 방금 추진식으로 겨우 개통을보고잇는데 부산을떠나봉천으로 가는제오렬차는삼랑진부터 특발햇고 제사、제이렬차도역시추진식으로 현장을통과시켜서 오후한시쯤에나 부산에도착되게되엿다。북행인제팔렬차도 오전열한시나 되여부산을떠나서 역시 추진식으로 침수된 현장을 통과하여 오후여덜시에 서울에 도착돼가지고 삼랑진에서 특발된 제오렬차에다가 경성역서부터 련락시켜서 북행시키기로 되엿다。

그리고 연착된 제칠렬차는경성역에서 정지하고 새로 경성서 제칠렬차를 특발시켜 북행시키기로되엿다。

勿禁三浪津水害로 電信電話全部不通

십사일아츰 여섯시삼십분 경부선(京釜線)물금(勿禁) 삼랑진(三浪津)간은 락동강(洛東江)의 범람으로 일본내지 조선경유 만주간의 전신 전화가 전부불통이되여 전신은 경주(慶州)를경유하여 대판 대련선(大阪―大連線)에 의하야 련락을하는외에 부산 목포간(釜山―木浦間)목포 경성간 목포 광주(光州)경성간에 의하야 련락을 하고잇는데 이를하야 전선은 상당히 지연된다 복구공사에 지금전력을 다하고잇스나 지금가려서는 언제 복구될런지 알수업다

復舊工事中

불통된 삼랑진(三浪津) 물금(勿禁)사이의 전신 전화는 방금복구공사를 하고잇는중이인데 어쩌면 십사일중에 개통되게될는지 알수업다 한다

洛東江上流 漸次減水

安東水位二米突(十三日現在)

【大邱支局特電】경북(慶北)락동강(洛東江)의 수위(水位)는지금점점감수되여가다 안동(安東)십이일 오전여덜시수위는 륙메돌이십이든것이 십삼일 정오는이메돌로나차히 줄엇다 선산(善山)의 십이일오후 여덜시 수위는 륙메돌구십오로 십삼일오전열한시 수위는 륙메돌사십사로 줄엇다 그외지방의 수위는 다음과갓다 왜관십이일정오팔메돌륙십、십삼일정오칠메돌팔십、고령(高靈)십이일오후두시십메돌사십、십삼일오후다섯시 십메돌、현풍(玄風)십삼일오후세시 십일메돌오십、십삼일오후세시 십일메돌

慘酷한堤川水禍 死者五十二名

郡內交通은全然杜絕

【堤川支局電話】십일일부터 일일까지 쏘다진 폭우로말미암아 충북제천(堤川)지방에서는 가옥삼백여호가 류실되고 침수되엿스며 도로、교량(橋梁)등의파손으로 자동차교통은 전부막혓는데 아프로 일주일을더지내야만 개통되리라한다 벌서사오일동안이나 우편물과 신문이오지못하야 이곳사람은 세상소식을알길이업서 궁금히지내는중이다 이고을 금성면북진리(錦城面北津里)에서는 가옥오십호가 침수되엿스며 송학면시곡리(松鶴面柴谷里)에서는 사태가나서 삼십일호가사는 부락에서 이십일호가 파묻치고 이십팔명이 누김려서죽엇다 이밧게 군내의판명된사망자수는 이십사명이다

奉化郡水害 死傷六名

【大邱支局特電】십삼일 오후열시이십분에 경북봉화(奉化郡)

오입이다

全南各地의 水害多大

自動車線不通

【光州支局電話】전남지방에도 십이일아침부터 비가퍼부어 각지에 침수소동을 이르키고잇는데 수해때문에 장성(長城) 령광(靈光) 간라주(羅州) 남평(南平)간 완도(莞島) 원동(院洞)간 해남(海南)남창(南倉)간의 자동차교통은 불통이고 농작물가리에도 피해는 상당히만흔모양이다

에서 홍수로말미암아 세명이죽고 세명이상처를 내엿다 침수가옥 륙십사호가운데서 전부너머진것이 사호 반괴된것이 일호이다

千五百町步 農作物全滅狀態

洛東江汎濫으로

【大邱支局特電】락동강연안이경북고령(高靈)군성산(星山) 개진(開津) 우곡(牛谷)다산(茶山)면일대에는 강물이 십메돌이상이 부는바람에 물이범람되여 가옥이십여호가 류실되고륙십오호가 침수되여 약일천오백정보의농작물은 전멸상태에빠젓다

晴雨難測의近日氣候

中部엔又復雨報

三南은 개어고 北部는 驟雨程度

各地天氣(午前六時)

京城	曇	東京	曇
全州	小雨	天津	—
木浦	曇	靑島	—
群山	曇	上海	—
雄基	曇	新京	曇
城津	曇	奉天	小雨
元山	曇	營口	小雨
江陵	晴	大連	曇
新義州	曇	釜山	曇
平壤	曇	下關	曇
仁川	雨	大阪	雨
中江鎭	曇	大邱	曇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北滿洲와中國揚子江下流에잇스며 朝鮮不連續線을끼고잇는 局部的低氣壓이 西朝鮮海에잇다 七六〇미리의高氣壓은 日本本州로부터 南朝鮮에떠지고잇다 北滿洲는 흐림이며 南滿洲는·비가오고잇다 朝鮮은흐리고 엇저면 小雨가잇다 日本內地도흐리고 琉球群島는 맑으며 東北地方及北海道는 개이고잇다 明日은 日本가조차못하여진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흐릴러이며 明日은 처음흐리고 후 비가오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九度八 / 同 最低 一九度二 / 今朝 最低 二〇度 / 同 正午 二三度三

◇新築落成 無料診察 往診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病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五二

【仁川觀測所發表】【仁川】장림이십일만에 태양의 빗을보게되지 이틀만에 또다시오는비소식=금십사일 오전십시 인천관측소발표에 의하면 금조륙시까지의 각지우량은 ▲全州一미리 ▲木浦六六미리 ▲秋風嶺二九미리 ▲釜山三〇미리로써 삼남일대가비만은개이고 흐리여잇다 오즉 전주(全州)만이 비를 나리고잇스나 작일까지호우를 나리든 동남단(東南端)의 불연속선(不連續線)이사라지고말엇슴으로 삼남은 차차로 일기가 조아지리라는데 그반대로중부지방에는 비소식이전하야진다 현재청도(靑島)남단에 칠백오십사미리의 저기압이발생하얏슴으로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호우는아니라도 비가오리라하며 북부지방은 대개흐리고 간간히소낙비가오리라한다 전하야 오는태풍은 완전히 남지(南支)로지해하얏슴으로 태풍에대하야는 다소안심이된다한다

自殺未遂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이백구십번지에사는 전상일(全相一)의처현정숙(玄貞淑)(二〇)은 십사일 오전일곱시 삼십분에 시어머니와 차운후 취잘는약을 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발견하고 곳부근고려병원으로 떠메어다가 응급수당을 가한결과 생명은 건질것갓다고한다

惡德肥料商

근일조선농촌의 농작법이 과학적관리를 채용하게되자 농촌의금비(金肥)사용량은 매년다대한수자를보이고 따라서 금비의가격문제에 잇서 그것이 만타는 밀접한 관계를 맷고잇다 이러한 정세를보고 근일 악덕비료상이농촌에 조량(跳梁)하는사실이 번번하야 농촌인을 괴롭게 한다는 소리는 여러드른바 어니와 수일전 금포경찰서(金浦署)관내에서는 농용(農用)안스타신 이라는비료를시내봉래정(蓬萊町)모상인이과대선전으로 판매한사실을알고 당국에서분석시험한결과 비료성분을조금도 포함치안흔것이판명되여 단연판매중지를 명령하엿다한다 이에따러 도경찰부는 관할각경찰서에 엄명하야 이상과가튼악덕비료상을 철저히취체하기로하엿다

天道敎地日記念式

시내경운정에잇는 천도교중앙교회에서는 금십사일이 동교제이세교조해월신사(同敎第二世敎祖海月神師)가 승통한 제칠십삼회지일기념일임으로 오전십일시동교당안에서 김경함(金庚咸)씨의 리종린(李鍾麟)씨의진례하에 기념식을 거행한후 동교소년부 합창대의 기념축합창으로 성대히 식을거행하고 동십이시에 폐식하엿다는데 오는십오일부터 부인강좌가 열리게되는관계로 참석인이 천여명이엿다고한다

一日十二時間勞働에 賃金은不過廿五錢

(二千五百職工의平素不平이爆發)

光州鍾紡怠業의原因

【光州】괴보=동양방적계에 좌인 종연방적(鍾淵紡績)회사에서는 소화구년시월에 광주부유정(光州府柳町)에다 십오만평의 기지를매수하야 륙백만원의 거액을드려 종방왕국(鍾紡王國)을 건설하야 남녀직공이천오백여명을 수용하야 주야로 작업중인바 그들남녀직공생활을 볼진대 녀직공초급이 오전륙시삼십분부터 오후륙시삼십분까지의 십이시간로동에 급료이십오전을 밧게된다는바 식대(食代)십오전을 제하고나면 하루종일 로동하고 불과십전이란것은 십전이라는데 그들이입사일년후가되야 익숙한직공이될지라도 불과이전이 숭급되야 이십칠전을 지불한다는바 그이천여명의 녀공중에 십이시간로동에 사십사전을받는 공녀는 륙명밧게업다한다 그리하야 병이들게되야도 무료로 치료를 밧는것이아니고 전부직공에게치료비를부담케한바 일차입사를 하면 외출은물론 자기부모가 죽는다 하드래도 보내주지를 아니하며 녀공생활을 구만두고저하야도보내주지안고 갈급생활을 계속하고잇서 인사계(人事係)에잇는 분들로서도 눈물이 업시는 차마볼수가업서 동사무원일동은 수일전부터 직공에요구조건임금인상(賃金引上)과 로동시간단축(勞働時間短縮)등이십일건과 동사무원측의 요구조건출장려비(出張旅費)규정 개정의 건등을 제출하고 십삼일조부터 형거스트라익을하고 잇섯는데 회사측에서는 전기사무원김갑선(金甲善)경경태 심남섭(沈南燮)등삼인을 해고식키엿든바 형세는 방금폭이나 악화하야잇다 한다 금후형세여하로는 이천오백여명의 직공도 행동을같이하야 동맹파업을 할형세이라한다

怠業事實否認

이상태업사건에 대하야 즉시 회사측을 방문하야 공장장의면회를청하니 등원인사계주임(藤原人事係主任)이 대신마저준다。

등원 이공장장은 급한일이잇서 면회할수업소 용건이무엇이오?

긔자=금번에 귀사원들이 대우개선의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사무를 보지안한다는것 이사실이지요

등원=절대그런일이업습니다

긔자=인사게사무원삼명을 해고식혓소?

등원=그것은 본인들이 그만두겟다고하야 그만두게된것이요 하고 말을 만히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부인하며 말하기를회피하고잇섯다

十四日曉頭 開城에覆面强盜

北本町河氏家襲擊

【開城支局電話】금십사일 새벽 오전세시경에 개성부북본정(開城北本町)이백번지 하영록(河永祿)씨집에 복면한강도가 월장을입하야 그집주인 하씨가자고잇는 사랑방에 들어와서 벼장을열으려다가 쇠가채워 열수가업슴으로 자는주인을 깨여서 회중전등과 단도를가지고 위협한후 열쇠꾸러미를 빼서서 문갑을열고 현금일백이십원과 주인의주머니에서 은전오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 생기어 이급보를접한 개성서에서는 즉시관내에 비상소집을 하는동시에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즉체포를 못하고잇는데 주인하씨는 강도가위협하는통에 바른손에처상을닙엇다 한다

慈城對岸에 反滿軍襲來

附近朝鮮人續續避難

십삼일오전열한시삼십분경 중안현태수지대(輯安縣水地臺)에반만군 해산(海山)일파약사십명이 습격하여왓는데 동지의 조선인은속속 조선내로피난중이며 이때문에 반만군은 조선측으로부터의 응원을방지하려고 조선측에향하야 발포한고로 평북자성서헌병주재서(平北慈城憲兵法洞駐在所)의 천도(川島)부장이하삼명이 경그관총을 가지고 출동하야 반만군을 정면으로 공격하기약 이십분만에 반만군은 조선인랍치자(拉致者)와 기타약탈품을전부버리고 두도구(頭道溝)방면으로도주하엿다 이전투에서 반만군측은 부상이 두명이오 경관대는 아모손해도 업시 오후한시에 무사히 주재소에귀환하엿다

運動競技

京城水上代表 明朝發平壤에

第一回京平水上競技會를 十六日午後一時부터 平壤府營풀에서 壯快히펼치어 이에出戰할 京城軍一行十三名은 淺陝河氏引率下에 明十五日 午前八時 京城驛發北行列車로 平壤에遠征할러이다

京城의스포츠 施設進步

第十二回올림픽東京開催에 關한朝鮮體育協會理事會는 十二日午後에 열고 올림픽 東京大會에 對하야 朝鮮스포ー츠團體의 根本方針과 準備에 關하야 種種意見을 交換한바잇섯는데 올림픽東京大會에 對한 朝鮮의 準備는 朝鮮體育協會만이 할것이아니라 在朝鮮스포ー츠團體及 全朝鮮의 觀光協會其他各種文化團體가 一致協力하야 行할것으로 이들 諸團體로 組織된 準備委員會를 設置하자는 意見이 一致되여 國際的스포ー츠에 關心을 가진 全朝鮮各種團體를 網羅하야 强力한新組織을 結成하기로 되엿다 올림픽 東京大會에 際하야 朝鮮에서는 如何한 記念事業을 할것인가의 腹案을 綜合하거로하고 朝鮮體協加盟團體에서 各히 硏究立案하야 今年末까지 體協에提出케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四年後의 東京大會에 對하야 至急히 準備에着手할事項은 다음과갓다

▲京城運動場의新增改築

一、陸上競技場에메인스탠드의改造 役員選手室 放送室의整備 便所의改築

一、專用蹴球場의新設

一、拳鬪링의新設

▲體育館建設

室內競技場을 新設할뿐아니라 選手의簡易宿泊所 一般健康相談所 스포ー츠關係諸會合室等을設置할것

等을緊急問題로하고 東京大會때에參加할諸外國選手가 京城에들려서 練習試合을行할은勿論 或은大會前合宿練習을行할듯이 잇슬것을豫想함으로 이에 面目을일치안토록 京城의스포ー츠施設은 只今부터 萬全을期할 準備를하기로되엿다

甲子園中等野球

甲子園中等野球大會第二日의 第一回戰은 十四日午前九時부터甲子園球場에서 開始된바 戰績은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小倉工業	000100020	3A…2
嘉義農林	100021000A	4A…3
鹿兒島商	002000000	
取鳥一中	02010000A	

橋岡拳鬪敗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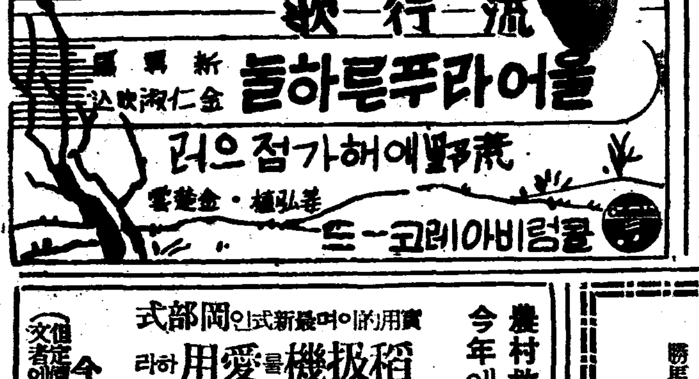
【伯林十三日發同盟特派員】拳鬪競技에 出場한 日本代表選手는 모다 敗退하엿다

【準準決勝】 빠람級 第五位 橋岡俊平 세벨벨그(瑞典) 判定 橋岡(日)

올림픽水上戰績

【女子百米背泳決勝】1센프(和)一分一八秒九 2마스애펠크(和)一分一九秒二 3뿌릭지스(米)一分一九秒四 4모ー드려지(米)一分一九秒六 5뿌랠ー스뜨롱(丁)一分二〇秒四 6뿌라ー튼(英)一分二〇秒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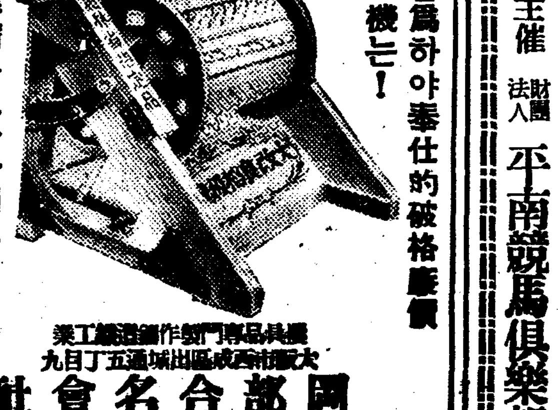
【女子高飛込決勝】1뿌인트·힐(米)三三點九三 2단(米)三三點六三 3케-1·뷰(獨)三三點四 4大澤禮子(日)三二點五 5키리샤(米)三〇點四七 6香野夫佐子(日)三〇點二四



指導 社員二名至急採用 固定給 年齡二十以上有經驗者 活安定 又는官公吏銀行會社退職者 優待 面談 十五日까지履歷書送付 昭和生命京城支部 京城府黃金町三丁目

朝報案內 至急廉價放賣家二件 府內西大門町二丁目八六番地二層店舖付住宅 府內社稷町一八五番地瓦家住宅 希望者는 電話光三三四番에問議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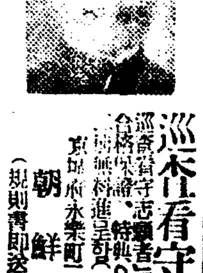
간기유치경풍、설사푸른똥에「절아보」 三十五錢 本舖 京城藥局 振替京城八三六七 電話光3三二四

稻扱機를愛用하라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今年에稻扱機는! 農村救濟를爲하야奉仕的破格廉價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但定價半額以上先送金文者에限하야出荷) 組立 二人用

農具專門製作工業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電話櫻川二六二四 振替大阪一六九九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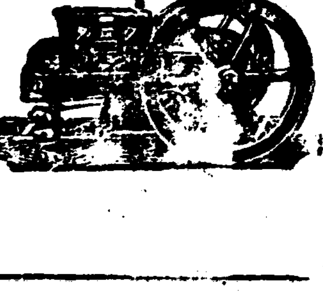
平壤秋季競馬大會 場所 船橋里郊外競馬場 期日 八月十四日(金)十五日(土)十六日(日)十七日(月) 廿一日(金)廿二日(土)廿三日(日)廿四日(月) 勝馬投票券 單勝金二圓 複勝金二圓 主催 財團法人 平南競馬俱樂部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徒町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檢眼無料 限學生 ◎急告 世富鯛偶似商號를僞用하야奸利를取하는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諸君은御注意를要하옵소서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을卒業하면合格된者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을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電本(2)三〇三三番 (規則書即送)

クボタの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伊佛瑞米英獨特許 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文献進呈)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②局0565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3・905・904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新京

쓰리지안코
압흐지안함

事務家・学生諸位의保眼에!

로ー도안약

井上獨逸博士 處方
中尾藥學博士 指導

BUSINESSMEN AND COLLEGE BOYS!
Take good care of your eyes! Because:
Your visual power greatly affects the
efficiency of your work.

視力의障害는能率을低下한다

諸君! 諸君은執務中、勉學中、때때로 頭痛이나 倦怠를感하는 일은업습니까 이것은 視力을 長時間過度히쓰든지 或은 度가 맛지안는 眼鏡을 쓰게되면 視神經과 直接連繫되고잇는 大腦質에생기는 異常作用의 發顯입니다。眼과腦가 그러케까지 緊密한關係가잇는것을 알어섯다면、諸君은 諸君의눈에 항상充分한休養을 줄것이며、그리고、보담 新銳한視力을 盛케하야 頭腦를明晳케하며、마음끗 執務와勉學에 能率을다합시다。그런데上述한 때에생기는 頭痛倦怠의 症狀을 醫學上……

「眼精疲勞」

라하지만、그것은特히記帳、計算、라이피스트、講議의노ー트、혹은編物、裁縫等、細書한文字의讀書等微細한 物體를 보는분에만흔 近代的疾患의 하나입니다。

眼精疲勞에 걸여슬때에、처음에는 눈이疲勞되기쉽고、物件이흐릿흐릿하게보이며、머리가 무겁고、짓끈짓끈아프거나、또는 睡眠이不良하게되면、判斷力、記憶力의 減退를 보게되는것입니다。

만일、諸君이、이와가튼 症狀을 自覺하여슬때에는 곳 그原因이되는것을 除하고同時에 ロート目藥과가튼 眞正한眼科藥을 每日數回點眼하야、眼에休養을 주어、疲勞하는것이 必要합니다。그外에 諸君의 젊어가게는 眼病에……

結膜炎 도라홈ー 學校眼炎 — 이러한것이잇습니다。

끗시씻고、하로 二三回 ロート眼藥을點하니다。ロート目藥은 그 殺菌作用으로 病源菌을 죽이며、消炎作用으로 炎症을除散식히며 收斂作用、鎭痛作用으로 充血과 腫痛症을退治식히는 性能이 綜合的으로 有効한 効能을다하고 잇슴니다。

小兒의眼病

幼兒면、아침 이러나슬때、눈가장자리에 눈꼽이 붓호며 … 것은 눈이뜨지안코、또는 힌눈자이에、붉그스레 充血되는바、이것은 흔히 急性結膜炎입니다 어린애기들 點眼에는、시지안코 아프지안코 安心하고 使用되는、特히 小兒들을 爲하야 處方調製한 小兒用 ロート目藥이 가장 有効합니다

適應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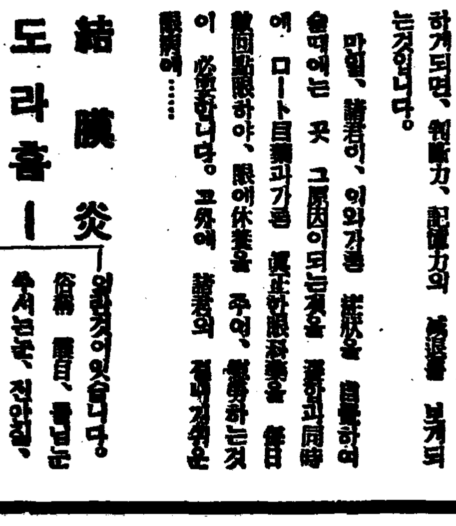
結膜炎・角膜炎・疲勞眼
도라홈ー・學校眼炎・眼瞼緣炎・角膜翳・結膜充血・麥粒腫等
俗稱에쑤시는눈、돌닌눈、爛目、다락눈、血眼、霞目、삼눈
흐린눈、雪眼、淚眼、疲勞眼、

藥價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어느藥店에서든지 잇슴

●新案特許 ロース式
自働點眼容器



★使用法說明 下部의 뚜경(蓋)을 떼고 上部를

本舖 山田安民藥房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

모자는 무용의것 맨머리로나다니자

모자장사들은대공황이겟지만 대머리치료엔가장유효

욧어 거리에 나서 볼때 · 뭇사람이 맨머리ㅅ바람으로 다니는 청년들이 퍽 만히 잇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가르처 흔히 탈모주의자라고 하니 벗을탈, 모자모, 즉 모자를 벗고 다니는 주의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관을 하지 안코 나 돌아다니는 것이 점잔치 안타고 반대하는 분도 잇거니와 직접 머리에 해ㅅ볏을 쏘이는 일이 해롭다고 타파하는 분도 업지 안습니다. 점잔코 안점잔흔 것으로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케케묵은 이야기지오 만은 몸에 해로우나 그러치 안하나는 반듯이 알아 두어야만 할 일입니다. 모든 것에 첫째가 몸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구지 할필요는 조금도 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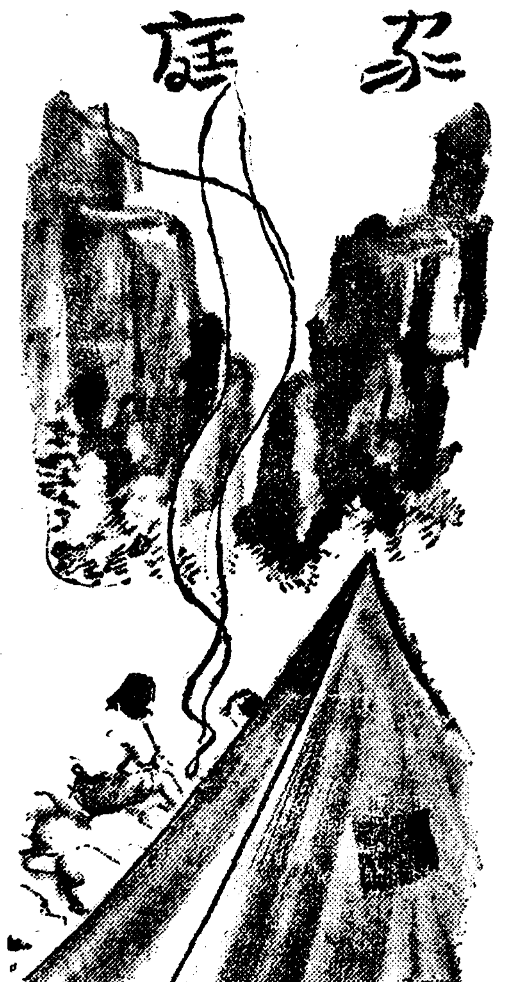
본래 해ㅅ볏중에는 다 아시다시피 열선(熱線)과 자외선(紫外線)이 잇는데 이중의 자외선이란 피부(皮膚)의 활동력을 노피는동시에 외음의 활동력을 붓도다주는것입니다. 대머리를 고치려는 분들에게는 인공태양(人工太陽)이라는 것을 맨들어서 일부러 이자외선을 쪼이어 주는수도잇습니다. 그러니 모자를 벗고나어 햇볏을 쪼이는 것이 이로울 망정 무슨 해가 잇습니까? 해가 잇다는것은 공연한 소리가 아닙니까? 머리털이 섞기거나 머리털이 작꾸빠지거나 또는 대머리가저서 걱정되시는 분은 모다 탈모주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자외선이 모근(毛根)을 자극(刺戟)하기때문으로 모발(毛髮)이잘 자라고 또 멀빠지게되오리다.

×

그러나 넘어오래 해ㅅ볏을 쪼이어서는 도리어 무익유해합니다. 그저 알마치만 쪼이어 두는것이 제일좃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한번 나갓다가 돌아와서는 말근물에 반듯이머리를 씻서야지 그러치 안흐면 몬지에 땀에 더고 또 떠거 오히려 위생에 나쁩니다. 그러고 머리를 씻고 나서라도 물을말짱 말려 가지고 감으거나 치키거나 하여야지 물에저진대로 빗질을 하여서는 재미가 적습니다. 하여튼 모자를 벗고 다니며 자외선을 쪼이는 것도 아모때나 함부로 시작하는이보담은 규칙적으로 련습해가야 합니다. 가장자외선이 약한 어른봄부터 가장 자외선이약한 도시에서 차차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는아모데서나 천천히 탈모를 합니다.

×

그런데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모발의생으로 보아서 안 바르는 것보담 낫습니다. 기름으로는 춘유(椿油)산다화유(山茶花油)등의 식물성기름이 조코 오렌프유가튼 것도 과히 언찬을 것은 업습니다. 다만 기름이 땀이나 몬지와 함께 섞어 노흐면 냄새도 고약하려니와 머리털도 비치 죽고 말채가 나지 안습니다 기름바르는 머리를 나가려거든 날마다는 씻어주는 얼마라도 이영양에 한번씩은 꼭 씻어가야 합니다 탈모가 조흔것은 비단 남자뿐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공연한 례의를 지키지 말고 모자를 벗고 다니는 것이 조켓습니다.



家庭

겁으로병을사는 성신경쇠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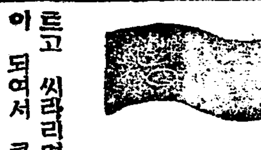
치료의비결은—태연자약

성(性)에관한 번민은 그것을남들에게 알킬수업는것 임으로더욱심각한수가만습니다 성에대한 번민이라는것은 대체로 둘에는 흘수잇스니 하나는 성을 만족시킬대상이 업서 번민하는 것과 하나는 대상은잇다하더라도 자체에대하야 만족을 엇지못한다는데 잇는것입니다

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이라는것은 후자의 자체불만족에서 일어나는것입니다 그러나광범한 의미로 해석하면 무슨특별한 병이아니요 보통일반의신경쇠약의하나로 증세가 나타나는것입니다 신경쇠약으로걱정하지안해도조흘 것을 걱정하며, 짜증을 내고잇스나 다른 사람이 볼수업는병인데 자긔혼자만 고생하게되는것입니다

증세로 볼때는 아페서 말한것과가티 짜증이 난다던지 근심이 되는것은 신경쇠약의 중심이 되여잇는 까닭이며 성신경쇠약이라하는것은 다만 그신경쇠약의 중심점이 생식긔에잇는것을 말하는데 불과한것입니다 그러하야 여러가지 증세를 의사에게 호소하게되나 실지로 의사가 정확히 그근본을 포착하고 증세를 밝게진찰하는것은 극히 드믄일입니다 그러므로대개는 신경쇠약이라는것을 큰병처럼 생각하고 그자체에 대한 치료법을 알기도 전에벌서 큰병이 잇느니 하야 걱정을 거듭하는 동안 정말병세는 점점더하여가는것입니다 이것은 흡사히 자긔손으로 잇슬수도업는 이상야릇한 귀신의 얼골만드러노코 그귀신을 무서워 벌벌떨다가 그만병이되는것과 맛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성신경쇠약은 병자자신이 잘요량하야 조용히 증세를 살펴가며 약을먹고 몸과생식긔를 튼튼케하기에 힘쓰며 걱정을하지마러야합니다

독충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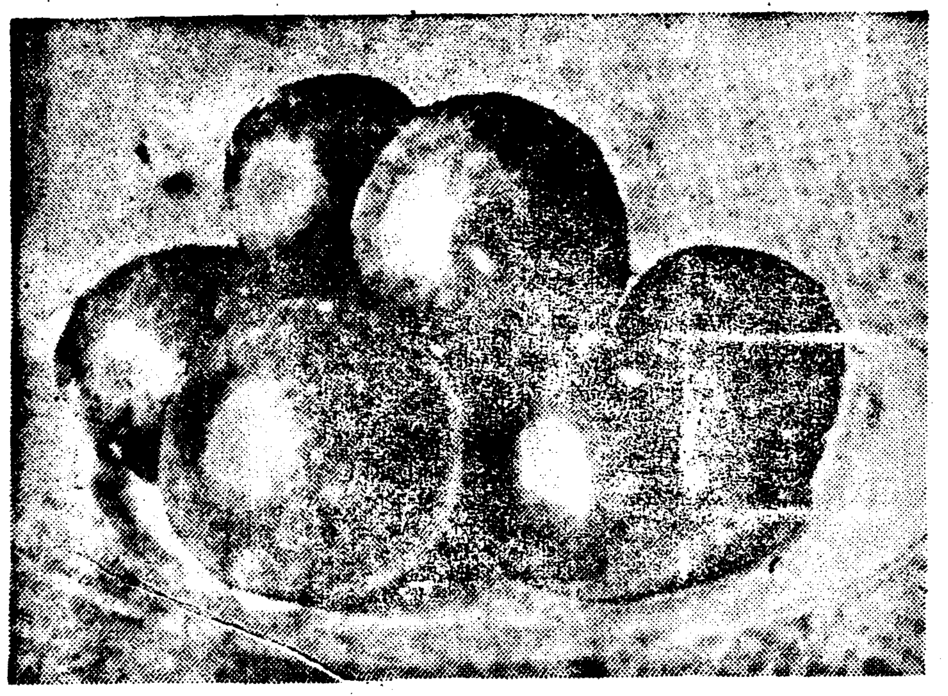


산이나 들에 도라 단이든지채전밧 가튼데를 드나들때에는 흔히 독잇는데버러지에게 손과발을 물여서 살이 부르트고 씨라리며 어느때는 중독이 되여서 큰 고생을 하게되는수가잇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데는 버러가따히잇는산이나 들로를 밧헤갈때 미리 세수대야에 밧줄물을부어서 소금한숟깔과 비누조각을 조곰떼여 물에너코 잘게여서 손발과다리에 발너가지고가면 절대로 벌레가물지안습니다

빈대물린데

빈대나 모기물린데 암모니아를 바르면 가려운것이 낫습니다그러나 암모니아를 가지지못하얏스면 [illegible] 발너도좃습니다



건강을 외치는 주옥가튼토마토

영양소—비타민에이·삐·씨 올여름에도양껏먹자

토마토는 남미페루(秘魯)라는나라에서 낫다고하며 조선에서는 몃해전부터 재배하기시작한것입니다 처음토마토가 들어왓슬때는 모다 보기조흔과실로만알고 먹으라고는 하지안햇스나 요사히는 그영양가치가 훌륭한것이밝혀져서 우리가정에서도 반찬을만들고 생것으로도 곳잘먹습니다 토마토가 사람의몸에 리로운것은 첫째 토마토의성분가운데는 「비타민에이·삐·씨」가 모다만히들어잇습니다 그리고 당분과 유기산을 또한만히 가진까닭에 달작지근하면서도 향긔가나는것입니다 보통그냥먹어도 조치니와 꼬질열 위장병 각기마비가튼 병을가진 환자가 먹으면 병을 곳치는 효험이잇습니다 밥이 잘 내리지안코 여름때 보통은 도마도한개를 잘 씹어서 먹어보십시요 그냥 당장에 가슴이 편하며 속이 시원하야지고 뒤가 잘보여질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도마도를 가지고 음식을 작만하랴면 제일 쉬운것은 잘 익은놈을골라서 더운물에 조곰 너허두엇다가 동그라케 써려서 초간장이나 그러치안흐면 설탕을 처서 그냥 유리접시가튼데 담어상에다가 올려노아보십시요 맛도그럴듯하며 풍취가여간 조흔것이 아닙니다

그다음 이것을 가지고 간단한 양요리를 만드러 먹으지면 더욱 조습니다 도마도의 잘익은 놈을 골라서 우에서 말한것가티 더운물에 조곰 너허두엇다가 엷은껍질을 벗겨버리고 그것을 도쭉가티 써러서 씨나힘살을 떼여버린후 소곰을조곰 치고 거긔에 쏘—스를 너흔후 볶은깨를 솔솔뿌려서 「살라다」를 만드러 먹으면 간단하고 더욱 맛이 조습니다 이것을 보드러운 양배추입사귀를 유리그릇에 펴고 그 우에 바비—요 스와 도마도를 담은 「살라다」는 여름 료리로서는 제일입니다 그러치안흐면 자디잔 오이를 도쭉으로 써러서 엷은소곰물에 담엇다가 도마도를 도쭉으로써 뒤섯거놋코 서거서 프렌치소—스를 친것은 더욱조흔 「살라다」입니다 · 그다음엔 잘익은 도마도를푹 지다음을 칼로오리고 속을 후려낸다음 그속에 게란과 소고기를 점어서너코 양념을처서 고초를 조곰너서 연한우락(牛酪)을 더운후에그것을끼구어면 여간조흔반찬이되는것이아닙니다

도마도! 조선말로는 땅감이라고하기도하며 일변감이라도합니다 빗조흔개살구라더니 도마도를 처음먹어보면 정말얼골이찡그려질것입니다 도실토실한살덩이에 새ㅅ빨가빗갈 감홍시처럼 연해보이는 도마도의 매력엔 누구나 한개먹어보시픈 생각이 들것이며 미각신경의 자극을 바들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자시여볼분은 그모양에 비하야 엄청나게 미지근하여 구역나는저입맛! 퉤배ㅅ허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도 안흘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곰더한번쯤을 심지고 다시 한번 도마도를 베여잡서보시는 아량을 가지시요 그때는 반듯이처음보다는 그맛이 조곰나흘것이며 차차구미에 마저서 나종에는 정말친해질것입니다 회초로서도 고상한 정취가잇슬뿐안이라 영양가치는 단연과실중의 왕자입니다

어른童話 ② 뻑꾹이형제

—(아들찻든영감님이의얘거)—

康承翰

뻑꾹이 우름은 어대서 듯든지 매우 구슬프고 처량합니다. 압뒷산에서 「뻑—꾹」「뻑—꾹」 마조우는 소리를 듯노라면 아조 처량스럽습니다. 이뻑꾹이는 아들형제를 일허버린 웬영감님이 되엿다고 하는데 그이야기는 아래와 갓습니다

×

이것도 오래전 옛날의 일이엿습니다. 어느산 조그마한 동리에 봄, 여름, 가을 겨울할것업시 늘 산냥만하여 그것으로 살어가는 집이 하나잇섯는데 그집에는 「뻑」이라는 형과 「꾹」이라는 아우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어가드랍니다. 아들형제는 매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엿습니다. 어느해 여름날. 뻑꾹이 두형제는 활을메코 산발을돈이하고 사냥을 나섯습니다. 사냥을 하러간곳은 아조 깁고 수목이 울창한곳이요 집에서도 착실히먼곳이엿습니다 두아들이 사냥을 나간후에 아버지는 집을보면서 도라올 두아들을 기다리엿습니다. 여름날 짧은해가 서산에 기울자 아버지는 저녁을지어놋코 아들을 기다리엇습니다. 그러나 해가지고 달이떠오도록 아들들은 돌아오지 안헛습니다. 아오지안허서 또무슨일이나 업나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렷스나 달비치 뚜렷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안헛습니다. 아버지는 마당가에서 왓다갓다하며 아들들을 기다라다가 안타까우니까 슬금슬금 산ㅅ길로올라가며 멀리 아들이 돌아오나 바라보앗스나 그림자도 아니보엿습니다. 아모것도 밋는것이업고 아들 둘만 밋고사는 이영감님은 그만 미칠듯하여 · 산길로 싸다니엿스나 종내 두아들을차저내지못하엿습니다. 「울지 그애들이 길을 잘못든게군! 어디 집에가서 하룻밤만 기다려보아!」 이러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영감님은 달벗흘 지고 집에 돌아가 자리우에 누어서 혹시 지금이나 돌아오나 조금잇다가 돌아오려나 생각하며 밤을 새웟스나 다시 집에 올술 몰으는 뻑꾹이 형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리게 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아니 돌아왓습니다. 그 다음날도 다음 날도 돌아 오지안햇습니다. 영감님은 더참을수가업섯습니다. 미칠듯이 밥먹을생각도 아니하고 잠잘생각도아니하고 그기픈 산골작이를 샅샅이 헤치며 아들을찻는것이엿습니다. 「뻑꾹아! 뻑꾹아!」

영감님의 아들찻는소리는 온산을 흔들엇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소리에 앞뒷산이 쩌르렁쩌르렁 울릴뿐이오 종래 아들은 나서지 안햇습니다. 아마 호랑이가튼 무서운 즘생에게 물려갓는것이겟지오. 영감님은 가시덤풀에 옷은걸려찟기며 아처 돌의이름을 부르는동안에목이쉬고 목이쉴뿐아니라 기진맥진하여 산골짝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말엇습니다.

이때 영감님의 뀨상한모양을 산에잇는 산신령이보고 영감님을 다시 살리엿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살린것이 아니라 「뻑꾹새」로만들어 그리운 두아들의이름을 부르게 하엿답니다. 두형제의 이름이형은 「뻑」이요 아우는 「꾹」이기때문에……。

여러분 뻑꾹이소리가 아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가지안습니까?(끗)

暗黑街의魚族 —깁고기픈바다속에사는고상한고기들—

인조교직은 빨래가힘든다

서툰빨래는감을버려

여름철옷감가운데는 옛날엔 삼배(麻)나 모수 가튼것뿐이엿스나 요사히는 여러가지 섬유를가지고만든 교직물이 만습니다 그런데 이교직물은 보통옛날옷감처럼 그냥문질러빨아서는안됩니다 인조교직중에도 인조보이루나 조셋트가튼것을 만히들 쓰시는 모양인데 이것의 빨래하는법을 잠간이야기하겟습니다 교직물은 대개가 빗갈이잘씨처지지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우리네가쓰는 세탁비누를가지고 씻처도잘집니다 씨칠때는너무 더운물이안조흔 밍밍한물이나 차운물에다허서 그냥잘흔들어 씨친후에 주여짜지말고 그냥들이 뚝뚝뜻는대로더러말리여야 합니다 풀을먹이는데도 여러번가는채에 친풀가루를가지고 그냥 생풀을먹여야합니다 「벨베툭」가튼것도 만히들입으시는모양인데 이것은 첫재상등비누로씻처야 하며 물도냉수에 빨어야합니다 여러번물에 헤워서짜지말고 그냥너러말리어야합니다 다말려버리기 전축축할때에 반듯이 가장자라가 놀어진것을 잘만저서정돈해두시지안흐면 안됩니다

학의정가

外토픽

부부용려행차

자동차려행을 질기는 미국에서는 요사히 부부려행용 류선형자동차가 생것답니다 뒤에는 침대차가 따로히 달여서 강철로 만든것으로서 무기는 사백팔십오파운드 기리는 팔피—드가 되답니다 현수포장만올치면 멋진띠풀 「빼」잇스며 밤이면 풍긔이불을깔고 천이백파운드까지의 짐을실을수 잇답니다 이려행차는 부부만이타고서 몃철리라도려행하면서 가정과가튼 안락한맛이잇다는것이니 신긔한것을 조회하는 양키—들이나 환영이 아닐까

아홉번죽은사람

요사히 멕시코의시골에서는아홉번죽엇다가 사라난사나히가나타낫답니다 간질의발작으로 다섯번 투신자살미수로 세번 철도자살미수로한번 도합아홉번죽을번하다가 사라낫답니다

긔흉치료중에보약

問 금년이십세미혼남자인대폐첨가답아(肺尖加答兒)에걸리어두달만에긔흉(氣胸)치료를 하여지금까지 오개월간을 계속치료중인바 체온은차차정상도와 칠도사이고 담과기침은업습니다 감금도한이잇습니다 속히낫고저하는생각은 긔흉치료를하는한편으로한약을 복용코저하오니 엇더한약이좃습니까 오난이하기부터는학교에출석코저합니다 특히교하야주시기바랍니다 (新義州生)

答 긔흉치료(氣胸治療)를계속하야 당신과가튼증세에이른것으로보면경과가 양호한것갓습니다 한약보재로는 경험한바가업서 대답키어려우나 긔흉치료를계속하실의향이 잇스시면 한약보재를 복용하심이 더이치안할까요 「하리바유」 내오론토니크, 몰트엑쓰등이다조코적당한것입니다 긔흉중간에 단절치마시고 계속하여야되며 더욱히영양(營養)을 충분하게 취하하여야됩니다 (醫學博士 朴榮來)

家庭醫學

姙娠中의婦人에게 炎暑時節의攝生

危險한姙娠腎의原因이되는暑熱

炎暑時節인 요즘에는 健康한사람이라도 胃腸을害하기쉽고 感氣에걸니기쉬운거신데 況姙娠中에잇는婦人은 抵抗力이弱하야저서 잇기때문에 感氣에걸니다든지 胃腸을害하게되는일이 往往잇는것입니다.

姙婦가 胃腸障害라든지感氣에걸니게되다고하면 常人과달니하야서 脚氣라든지腎臟炎等의 餘病을併發하며 더욱이나무서운것은 姙娠腎이라는것인데 無理하게내버려둔다고하면 마즈막에는 生命을빼앗고마는 子癎을이르키는일이적지안습니다 이즘은特히 胃腸에 注意하야서 잘때에도차게하지안흘것은 勿論腎臟炎의疑心이잇는境遇에는 檢尿에 依하야 其有無를確實히알아서 早期에 治療하도록힘쓰지안으면안됩니다

姙娠腎의症候로써는 눈알이어름어름하야지며 手足에 浮腫이생기는것이 普通이지만은 明確한症狀이업다고할지라도 몸이해라하야지며아모것도 하지안는데

곳疲困을느기는사람

은한번疑心하야볼必要가잇습니다 萬若에姙娠腎을 發見하엿슬때에 難動物性의蛋白質鹽氣가强한食物을 避하고植物性이잇고水分이만은食物을攝取하며便通利尿等에 注意할것입니다 牛乳西瓜水分만흔果實等이좃습니다 最近에特히推賞을밧고잇는것은 活性「헤—뭬」菌劑「錠劑わかもと」를服用할것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 獨有한 有益菌으로서 乳酸菌以上의 效果가잇는헤—뭬菌에다가 特히ビタミン アミノ酸グリコーゲン、無機物等의貴重한成分을含有한培養製劑한 微生物劑로서 單只腎臟炎에조흘뿐만안이라 胃腸障碍라든지 脚氣等에도 顯著한效果가 잇스며 떠욱이나 姙婦或은 胎兒에게不足하기쉬운 營養成分 アミノ酸中에도リヂン ヒスチジン ビタミンB、D、無機物로써는カルシウム等을豊富히 含有하여잇스므로姙婦의抵抗力을 强하게하며衰弱貧血을防止하며 胎兒의 發育을促進시키며 流産 早産을 防止하는效果도 顯著합니다ー。 또「錠劑わかもと」가姙娠初期에이러나는 惡阻를豫防하며 輕快하게하며 食慾을增進케하는 效果가顯著하다는것은 專門家들이特히推賞하는바로써 梅雨期와가튼 氣溫에 惡阻라도 增惡하기쉬운時期에는 업서서는안될姙婦의 保險藥이올시다。

古代의分娩促進劑
分娩이가까운姙婦를寢台에붓드러매고나무묵거노흔우에다가세우는亂暴한古代의分娩促進法 中世以後에는이러한亂暴한方法을쓰지안케되엿다

貧血과食餌療法

貧血은營養의缺陷에서起因하는바 赤血球와血色素의不足으로부터 오는것이므로써 이것을補充하는 方法으로써는 營養의缺陷을食用하는것이 조타고는하나 胃腸이弱하야서먹은것을充分히 消化吸收할수업는것으로써부터오는 境遇도잇스니까無理하게 肝臟을食用한다고하드래도 오히려胃腸을 害하는일이잇지아모 效果가업는일이잇습니다。

이런境遇에는 爲先胃腸機能을整調作시키는 同時에榮養을豊富히는「錠劑わかもと」를 倂用하는것이 推奬되여잇는바이藥은血色素의原料인ヌクレイン과 鐵ビタミン等의貴重한 成分을含有하고잇스므로써다른療法으로써 效果가업는 惡性貧血도이것으로써 治療한實例가만습니다。

어제로부터만허지는 姙娠脚氣의豫防法

梅雨期로부터 炎暑時期에이르러 氣溫、濕度가高하자는關係로써新陳代謝와 營養의補給이平衡을일코胃腸障害라든지 脚氣가激增하야지는바 特히姙娠中인婦人은 胎兒와의 두사람分의營養、代謝를負擔하는關係上 普通의脚氣보담도

急激

히 增惡하야지는 傾向이잇는 姙娠脚氣를 이르키는 일이만습니다. 이것은 前段에서述한바 姙娠腎과아올너 姙婦로써는 가장警戒하여야할 病으로써 抵抗力을 弱하게하며 難産流産의 原因이되며 또는胎兒의發育을阻害하며 分娩後는乳兒脚氣의原因이됩니다.

이것을豫防하며 或은이것을治療하려고하며는 普通사람의脚氣와 마찬가지로ビタミンB를 十分補給하는것이必要한것이데 姙婦의境遇에는ビタミンB뿐만안이라 나아가서 胃腸을强하게하며姙婦의胎內에蓄積하는 老廢物、有害物을 分解排除하는工作이 必要하게됩니다.

效果

今日姙婦脚氣의 豫防과治療에 活性「헤—뭬菌劑」「錠劑わかもと」의服用이第一이라히 推獎하고 잇는것도 即本劑가以上에 述한바와도가튼 效果를 綜合的으로 備하야 잇기때문입니다.

根幹

이라고하는胃腸의 組織을 强하게하며消化吸收運動의機能을 노피며營養을旺盛케하는效果는 顯著한것이며 同時에腸內의異常發酵를 防止하며 有害老廢物의分解排除를 促進시키는 作用으로써 惡阻其他의姙娠中毒의豫防도되고母體와胎兒와의모두가 健康케할수잇습니다.

右記의 「錠劑わかもと」는百數十種을算하는 「헤—뭬」菌中에서 藥用으로써特히優秀한菌種을選擇하야서 專賣特許의方法으로써製劑한것으로써 絶對로남이模倣할수업는 優秀한藥이올시다。 이와가튼效果가잇다고하는 類似品(酵母劑、乳酸菌劑)을發賣하는傾向이잇스니까注意하십시요。 또한『錠劑わかもと』는 一日分 몇分에不過한奉仕的價格으로써 東京市芝公園大門內에잇는わかもと本舖榮養과育兒의會에서 發賣하고잇는데 全國藥店에서도發賣하고잇습니다。

苦心慘憺한經驗으로부터어든 腎臟炎과脚氣의豫防法

(大阪) 新井弘子

나는身體는 健康하나產前이되면腎臟炎을알엇습니다。產後에는 盜汗때문에如干만苦生한것이아닙니다 밤에는잠을들수가업고、精神이앗득하야지며(中略)

新聞에서『錠劑わかもと』가 조타고하는 廣告를보고 主人한테付託하야서 一圓六十錢짜리를사다가 服用하야고보니 漸漸잠도잘오고盜汗도줄는지안케되엿습니다。그리하야 몸도健康하야젓스므로 한瓶만服用하고는 中止하고말엇습니다。어린아해를도、튼튼하게길르고잇섯는데 二年前에또懷姙하고보니 害로말미아마 脚氣에걸니여서 그만죽어버렷습니다。 그해에 脚氣가말하기를 어머니가 脚氣에걸니여잇기때문에 단번에病이重하게되엿다고하얏습니다 나는왜그때에 『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지안하엿는지하고 後悔하얏습니다(中略)

三月에는 또아해를나케될니다。이번에는 繼續하야서 服用하기때문에 別로히몸에 괴로운것도업고腎臟炎도알치안코 每日每日元氣가旺盛하야서 어린아해낫키만苦待한니다。最近사람들에게도產前產後에 괴로움을밧는사람이잇다고하면『錠劑わかもと』를 勸奬합니다。 그리하야 우리집近處사람들은「錠劑わかもと」를 愛用하고잇습니다。(下略)

掛圖寄贈引換券을 活用하여 주십시요

「わかもと」一瓶마다 『掛圖寄贈引換券』이부터잇스므로請求하시는분은 藥局에가서 하지말고小包로回送하여주십시요 그引換券이一枚라도잇거든 本社에請求하야掛圖를 勸奬합니다。 詳細는東京本社芝公園十一號藥局에問하십시요

靜物

學藝

文學의 沈滯와 虛無的傾向

……最近東京詩壇에 關한 斷的片紹介……

❶ 金龍濟

나는 現在東京詩壇一部에 擡頭한虛無的傾向을 朝鮮文壇界에 紹介함도 無益한일이아닐줄밋는다。

따러서이에 筆鋒에올으는 二三詩人에게는 그의作品을通하야 否定的攻擊的批評의態度로 臨하라한다。

×

『詩人』誌上에서 遠地輝武는『레알리즘의行方』이라는 가장錯誤만흔

◇…論 文을쓰고잇다。그것은自己의 沒落한小市民的詩人의『虛無的行方』을正當化하라는 하소연의한口實에지내지못한다。

그結果그는 意識的이고 아님에 不拘하고 反動的社會파시스트의 任務를 行하고잇는것이다

이러한 『遠地』的니힐리즘에 對하야는 新井徹의 大體로 밝은 批評이나리어잇스나 나는 이에 조곰더 詳細히 苛酷히 批判하고저하는바이다。위선 筆者의所論을 듯자——『지금 레알리즘藝術이 우리들文學의 那邊에介在하고 那邊으로 그의行方을 숨기고잇는지 나는 그것을 아지못한다。아마도 그것은 時代의 進度로서 뒤떠러진 人貴的알리즘的詩人의 播驚中에 다만虛僞의表象을 明白히暴露식힐뿐 띠옥荒滿하야서『正體를보즉 말은 갈대꼿』이라는形像으로 向할것이다。레알리즘 레알리즘이라함도 지금新造語目의 한아이다。이러하야 나는지금이야말로 레알리즘이擊殺되고 全然忘却되지못하게된 현시점이다』라하리 그는 우리들알리즘

◇…陣 營에對하야 虛無的詩語를 부르고잇다

그것이小市民的詩人의沒落한現代的虛無的詩的 本質인지도 모른다 모아마다大勝利입을 放言일지?그의말하는『우리들의文學運動』이란것이 眞理의의 個人主義的虛無主義(그것은 末期資本主義文學으로서 發生文學에逆直되고잇다)이文學을 指示한다하면은 우서버릴수도 잇슬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말하는『우리들의文學運動』으로서는 이와가튼 아닐키—的니힐리즘과 社會파씨스트的에고이즘의 毒素를 社會的으로攻擊하고 嚴正한批判을加하지안흐면안된다。

第一 그는 現階段의階級的生活에잇서서의 現象과本質과의關係를 科學的歷史觀우에서서 發展的으로보지안는것이다。아니다 보라고도하지안코 따러서보지도 못하는것이다。卽現實에對한認識이 極히不足한것이다。그러함으로서 우리들側의 레알리즘文學의 眞實을把握할수가

◇…不 可能하고 그敗北主義의逃避的見解는

直時反動的拍車의 힘으로서 虛無的墓穴로 沒落되여가는듯하다

現階段에잇슨 階級的生活에對하는 强烈한感興과關心이 淺薄無力함으로써 現在에 人民戰線的波濤우에 實踐되고잇는 積極的生活意慾과 그의希望에찬 光明잇는面을 具體的으로 보지못하는『時代的色盲』인故로 그들은 벌서 그의進步的 血管속에貧血症이생기어 潑潑한 思想感情을 노래하지못하게되여잇는것이다。자라리 그것을忘却하고 그것을抛棄하고 그뿐만아니라 社會的으로 反動化하야 온것이다 이러한 모멘트에야말로 小市民的詩人들의 自殺的虛無主義와데카단스로이 送葬曲을 自唱하는 必然性이 잇는것일것이다。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鶻鴿哀語

—隨想— ❷ 禹昇圭

亡妹야!그러나 그것은 쓸데업는생각이다 너는 아미不歸의몸이 안이냐!。네가 한참 病苦에서 허덕거릴때 그리고 哀愁의絕頂에 매달려 발버둥칠때에 萬若 이 오라비가 네게對한 友愛가 常道에서좀더 지나첫드라면 네한목숨쯤은 救해내일 勇氣를 짜내일수 잇섯슬른지도 몰랏슬것을 내못난탓、내心弱한까닭에너로하여금 怨恨의못을 박은채 天折하게하고 만것이 아니드냐? 이것을 생각할때 나는 몸부림치도록가슴이 아퍼진다。그러나 이제는 다 헛되업!네가 네限命까지 享壽못한것은 내罪이고 내탓이다。

내가 하늘을 찌를듯한 慾火를 것잡지못해서 나를 기다라는 그도 아니건만 그래도 그는 나의 同氣이거니하는 어리석은(?)미듬을 호릿하게 가지고 『漢江』으로 逃避해갈때 너는 내가 出嫁시길때에 작만해준 佩物을 ××까지해서 旅費에 보태준것을 나는 記憶한다。그러면서 自重하라고 눈물을 뿌리든 그때를 나는 잇지못한다。그것은 내半生에 잇서 悶苦間에서나 남에게서나 일즉이 못바더본 거룩한 情의 贈物로 내게 最大의 感激을 주엇기때문이다。

懦兄姨에게 눈총받、밥짓잘으로『漢江』生活目을동안을 하다가 열쥐거 도라온 내게대한 그때의 네態度는 배구나 어떠햇는냐 비 血汗을 찌내서 노겨맨든거나 마찬가지인 分錢으로이따금 나의消閑劑를 네손소 사다가 주든것을 나는 또 記憶한다。그리고내가 네게베픈 友愛와를 비겨본다。너는 열、나는 그것의 한가닥。이것이 요사이 나의 良心上最大苦悶이다。

『심심하기에 선바위절(地藏菴)로 빨래를 하러갓다가 때뜻 너머저서 다리가 시큰하드니 이내 이러케 절룩거리게되요』

이것은 三昨年前 느진여름내가『漢江』서 도라오지 열흘이 못지나서 너로부터 드른 첫病報이엿다。

『설마 어떠켓느냐 神經痛따위이겟지?』

하고 내、그때 가볍게 慰安시키는말을 던지고 말지 안헛느냐。그러나 이 무슨 不吉한豫感? 放恣스러운 邪念? 너는 어려서 모르리라 마는 지금으로부터 열네해전 도라가신 아버님 山所를 着把해서모신뒤 어떤 妖妄스러운 地師란 賤人이 『이자리는 나빠서 아프로 十年안에당신네집안에 病身子息 셋을 들러이니 當場 緬禮하라는고 壯談을하면서 우리집안에 再三勸햇드란다。그러나 이것이 누가 코방귀나 뀔소리냐?

그후 往再十年——네가 가든 그해까지 滿十年——이동안에伸兄의 둘째아들이 꼽사둥이로 갓고 그다음 내 둘째아들이절룩바리로 아즉 살어잇고 그리고 너 마저 半身不隨로 가지안헛느냐!不良가되되 何必 偶數의 둘째子孫들만되는것은 웬變怪? 그리고 風水의말과 가리 우리집안에 病身이 너까지 꼭 奇數로 셋이 되고야 만것은 무슨 奇異냐?

내가 네게關滿病이 생겻다고 하는말을 때처음 들엇을때 가슴에 선뜻、느겨진것은 이러툿妖言이면서도 妖言으로만 돌릴수업는 怪風水의한마듸말이 十年동안이나 내骨髓에 처바쳐 사라지지안코 나려왓기때문이다。

——계속——

驪學生通信

歸鄕短信 (一)

延專商科 李大均

M兄!

옛날에 胡馬도 北風을 반겨하고 越鳥는 가튼나무에도南쪽가지에다 깃(巢)을 들인다하니 어찌 사람으로써 옛마을을 그리워하지 아니할수가 잇겟슴니까? 그리하야 兄과가티 漢城一隅에 몸을부치고 學窓에 노(書)를 저으면서 날마다 푸른 山처럼에 떠도는 힌구름을하염업시 바라보고는 展想의실마리를 멀리北天으로 푸려보내지아니할수업는 鄕愁와 追懷의交響道理가 엇지안햇소 이러케서로 눈울들어 山月을 바라보고 故鄕의情景을 눈아페 그릴적마다 나의故鄕은 記憶속에서 또한번 아름다워지고 그리워지는것은속일수업는 事實이엇지요。

M兄!

내가 나서 자라난옛마을은 漢城을등지고 北으로千里 閑寂한 農村宜川의 한 구석이 아닌니까。 내故鄕은 古蹟과人物보다도 自然의 樂園!

平野에는 [illegible]의 豪爽하야 너무나 推廣하고도 凄涼한 氣分이 가슴을 짓는못한 自然의 품안이옵시다。

M兄!

七月十一日 이날은 나에게는所謂『自由의 解放日』이엿나이다 오래동안 손꼽아 기대리든待望의 夏期放學이 아님니까。螢窓에서 낫들을 苦悶과 싸우며 燈에 흔들이든 精力을 期待한 自然의 품에 안기려고 鄕鄕의 길을떠낫읍니다。

M兄!

나는車窓에서 잠깐눈을붓치고 一聲汽笛에 京城驛을 떠나 왜 그런지 車窓은 고요하고 寂寂하기 冥想以外에는것도 平壤에 到着하니 黎明의 鐘소리가 各處에서 들리어 아침의空氣를振動식힘니다。나는旅裝을 整頓하고 이古都를구경하려고 나섯나이다

먼저 나는中學친구인 F君을 차자 乙密臺로올라갓지요。一千年을連綿하야나려온 우리歷史를 回想하니 懷古의感을 禁할수가 업습니다。나는지금F君과 갓치 松林속에파무친 이乙密臺에안저 멧말을주고밧고합니다。나는勿論 歷史家가아님은 兄님도잘알지요 이러곳을차저오려면 歷史의研究가必要하겟습니다。

日淸戰爭으로 일홈노픈 玄武門을 차즈니老松만 鬱蒼하고綠陰이욱어저 지나간歷史의 悲劇을다시 回想케하는데 古色蒼然한이門은 淸國의大敵앞에 마즌傷痕가잇섯는데 門은 비록상햇스되歷史의 자취를 본것도도 한가지 興味라하겟나이다。

M兄!

지금 나는 F君과가티 感傷的懷古의 感情에놓녀 멀리 樹林속어진 사이로 우는 白雲이덥고 아래는平壤府의 버듬가지가 碧波우에 흔들리는綾羅島 浮碧樓 永明寺를 바라보니 마치 一幅의 名畫를 對한듯、온갖醉夢이 一時에 屛風과가티眼前에展開됩니다

옛날 二千年前 樂浪時代의文化의遺墟!엇지우리에게 懷古의感이 無量하지안켓습니까?

M兄!

아곳에 안저호올로 二千年의樂浪時代의文化를 멀리 吟味할때 長久한時代의 變遷의 人類의莫大한 努力의 功勞인 文化가 얼마나褒하고 盛衰하얏는가를 생각할때 後世人의 無力을슬퍼하니할수가 업나이다。그時代의 文化도 近代文明人의 觀線을 놀냄만한 藝術品이 만치안흡니까

해가박귀고 歲月이 흘은 오늘도 아직 當時의榮華를 자랑하든 文化의舊墟가 이곳저곳에 남어잇건만 等等에 덥혀잇서그어듸인지를 指點할수도업습니다 이樂浪文化의 繼承者가 누구엇습니까。實로 歷史의 變遷으로든人類의 地位와 盛衰를 代言하건마는 나는홀로 우리조상의偉業을追慕치안흘수가 업섯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글을 쓰는 때는 午後 여덜時외다。四方에서 工場의『싸이렌』소리가 騷亂하게 들리나이다。工業都市의象徵이겟지요。『싸이렌』소리소리가 끈이자 街路로 쏠어나오는 職工들——그들은 오늘도 亦是 하로의 苦役을 마치고 明日의 生命線을 延長하려고 맨十錢의 賃金을 빵조각으로 交換하는 部隊입니다。

M兄!

우리는 工業都市에서는 이와가리 職工群을 만히 目睹할수잇는 反面에 多數한 失業群을 聯想아니할수가 업습니다。

그러니까 이 平和의 史都에도 世紀末的 不景氣의 暴風이 불어 왓다는것을 事實그대로 말하야 주고 잇습니다。

湖上에優遊하는 『아인스타인』教授

猶太人이라는 理由로나치스 獨逸을 追放當한 世界的頭腦『알벨트·아인스타인』敎授는 目下米國에 滯在中인데 今年여름 休暇를『뉴ー욕』州의사라낙湖附近에서 지나면서附近湖上에 小舟를띄우고 悠悠自適한 閑日月을 보내고잇다한다

天主敎의殉敎者

銷夏漫筆 【十二】

湖岩

朝鮮人이 泰西人의 存在를 어렴풋이 못게되기는 벌서新羅때부터려요 泰西人의 實物을 눈으로 보게되기는 高麗때부터이다。그러나 이것은 一個 使節團이다 宣祖時西洋地圖의 傳來로서 泰西文物流入의 最初를 삼을것이 이미 三百餘年前부터이다。그러나 이것도 그由來가未詳한 斷片的事實임으로 史的價値를 가지지 못한것이다 宣祖二十二年己丑(西紀一五八九)에그때 日本使臣 宗義智가 鳥銃二柄을 進獻한것에 來獻하니 이는 朝鮮에 鳥銃이잇슨 처음이요 泰西의 精銳한 武器가 日本을 거처서 半島에 輸入된 嚆矢이다 仁祖九年辛未(西紀一六三一)에 陳明使鄭斗源이 도라올때 西洋器物과 圖書를 北京에서어더다가 朝廷에 奉獻하니 이는 泰西文物이 中國을 거처서 多量으로 朝鮮에 輸入된 嚆矢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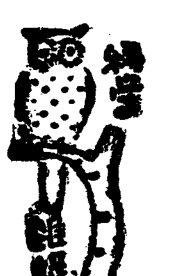
이러케 泰西文物이 地理的關係로 日本이 아니면 반듸시 中國을 거처서 半島에도러오게되엇다。

그러나 朝鮮人이 泰西文物에 對해서 어떠態度를 가젓는가하면 鳥銃만은 壬辰役에 잇서서 그威力을 잘認識햇스므로 相當한 理解를 가젓스나 그他泰西文物에 對해서는 아즉도 何等의 理解가 업섯섯다。그러다가 丙子亂後에昭顯世子가 燕京에 留質할새當時欽天監으로잇슨 泰西人과相親하야 西洋曆法의 精妙함을 알고 도라와서는데 孝宗四年癸巳(西紀一六五三)에 이르러 마침내 西洋曆法을 採用하게되어엇다。이것이 앞은비時泰西으로 泰西文物의 一端이 朝鮮人의 實生活과 기픈關聯을 짓게된 最初이다。泰西文物의 傳來를 考察할때 天主敎의 關係를 떠나서는 說明할수업스니 웨그러냐하면 그네宣敎師들이 文物傳播의媒介者가 되엿습이다 다만 朝鮮에 잇서서는무슨 까닭인지 天主敎의 宣敎師가 學問이나 技術의 傳播者은 媒介者된 實例가 매우드물엇다 그러치만 또 朝鮮이 朱子學에 依하야 統一되고 當時思想界에 잇서서·天主敎의傳來는 확실히 一大革命임에 어김엇섯다。朱子家禮에가장 尊重하는 神主를 毁燒하며 祭祀를 廢止하므로 朝廷에서 그네天主敎徒를 邪學人이라고 危險視하야 禁壓및迫害를 베하엿섯다。

그리하야 몇번이나 流血의慘劇을 비저내게되엿고 이것이 一轉하야丙寅洋擾가를 國際紛爭을자어내매 미처서는 西來의天主敎가朝鮮近代史와 서로떠나지못할 關係를맺게 되엿다。

일즉 泰西의 鳥銃과曆法을採用하게된 朝鮮으로도 이天主敎에 對해서만은 크게排斥하지 안흘수업섯스니 그는儒敎國의 當然한일이엿는지 모른다

天主敎의禁壓은 朝鮮史가 아니라 [illegible]하는 [illegible]의 거의共通한·現象이엇서다 朝鮮은 여기도 남보담 뒤지젓이다。朝鮮當政家가 부질업시 最後까지 鎖國을固執하게됨은 그實이天主敎를 排斥하기 때문으로그리한것이다。李朝近代史上 큰자국을남긴 大院王의손에 迫害된幾多의壯烈한殉敎者는 실로 이天主敎의 이름업는 異大殉敎者이다。後日天主敎는 이殉敎者들의 피로 거룩한 그우에 扶植하게되엇으로 十九世紀後半까지 거의孤立狀態에잇든 朝鮮을 泰西文化와 接觸시켜준것은 國際間에 締結된一片의 條約文이나 또는 國際間에 서로交換되든 形式上 公信書보담도 이無名의 殉敎者들의피을 알어야 하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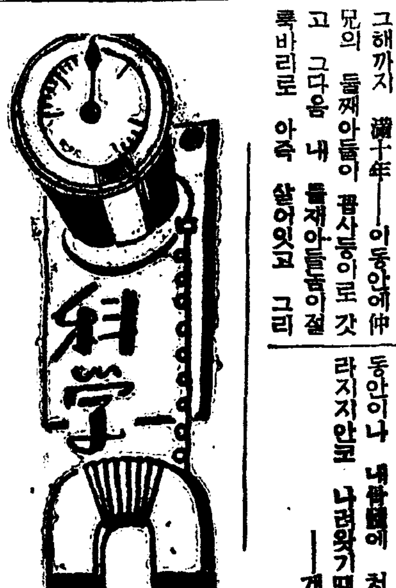


原子破壞裝置完成

米國위스콘신州 하ー킨스博士는最近『原子統』이라는 原子破壞裝置를完成하얏다한다 이原子破壞裝置라는것은 푸로톤을 每秒一萬五千哩이란 놀라운速度로 放射하는强力×線을엇는것이 目的으로서 이것이 成功한다면 지금까지 不可能하다고보고잇는 深部의病治療에 一大光明을 가저오리라고한다

絕對零度에接近

和蘭低溫研究所에서는 過去二十個年을두고 硏究한結果 五千分之一度로서 絕對溫度가되다는低溫을 만드러내엇다。絕對零度라는것은 熱力學上으로생각할수잇는 最低溫度로서攝氏氷點下二百七十三度十五를말함이다



科學의 ? 無電의異變인 『데린자ー』現象 (一)

東京 金一鎭

六月十九日 天體의 異變이 나타나는 皆旣日食의날이다。단二分間이란 짤븐時間。이二分間도 天氣가 不調하다면 이라는것보다도 이刹那에 구름이 太陽을 감추어도 失敗에도라가고만다는 참으로 運命을 하늘에맛기는觀測이다。이觀測은 太陽自體는 勿論이어니와 其他宇宙線 地磁氣의 變化『아인스타인』의相對性原理의 證明 太陽에 原因한다고 推定되는 電波의異變等을 研究함에 絕好의機會임으로 英國을 비롯하야 世界各國 天文界巨星들이 觀鬪北海道로 모이게되엿다。

이에 여기서 나는 太陽에密接한 關係가잇다고 推測되며無電界에興味잇는 疑問을 던지고잇는『데린자ー現象』에 對하야 小考察을 하고자한다。

一、現象의發見

『天體의 어듸로 부터인지 地球에 向하야 疑問의 信號가 發信되고잇다』는 驚奇的 記事가 昨年가을부터 新聞紙上에 報道되기 始作하엿다。이疑問의 信號라함은 短波無電通信이 暫時間中斷되여 通信不能이 됨을 말함이다。또한 奇異한것은 大體로 五十四日을 週期로 反復된이니 或時나 지금은 天文學界에서 信用하지안는 火星에 人間이잇서 거긔로부터 發信되여 아닌가하는 疑問이 생기게되엿다。

大抵 이現象을 처음發見한사람이 米國度量衡準局의 無電部長인『데린자ー博士』이라고만 이無電異變을『데린자ー現象』이라稱하게되엿다。이現象은 七八年前獨逸에서도 問題가되엿스나 五十四日의 週期를가졋다는것을 發見한사람은 이『데린자ー博士』가 最初이다 『데린자博士는 昨年三月二十日 五月十二日 七月六日及八月三十日에 이現象이엿섯다는것을 確實히알고 오는 八月二十日 十月二十一日 乃至二十五日에、또다시 이現象이잇스리라 豫言한것이 適中되엿슴으로 비로소 學界의 注目을 끌게되것이니 이疑問인無電異變에對하야 一般이 興味를갓게되도 無理가아니다。

太陽黑點과의關係

이現象의 第一特徵은 五十四日을 週期로 反復되는것이니 太陽照射가 地球面에 나타나는時 卽晝間에限하야만이러나는것이다 이五十四日은 太陽自轉週期의二倍에該當함으로 觀測地와 이現象이 나타나는 時期에는 恒常 同一한 太陽面에 臨하게되다。그러나 五十四日을 經過하지아니하야도 二十七日마다 이러한 位置에 올理致이나 何如間 太陽面上의 變化와 特殊한 關係가잇다는것은 容易히 推測할수 잇는 事實이다

大抵太陽面上의 變化로말하면 有名한 黑點을 [illegible]하면 [illegible] 黑點自體는 [illegible] 多少 나저 [illegible] 지 그溫度는 四五千度를 不下함으로 [illegible] 出하고잇다。이光線을 分析하여보면 强力의磁場이 作用되여잇고 또한非常한 渦動이잇는동시 이黑點이때로는 나타나며 때로는 업서지고 或은形體를 變하는等恒常 變化하고잇서 무슨特別한活動이 잇슴을 짐작할수잇다。黑點과 氣象에關하야는 不少한硏究을하여왓스나 黑點과의 直接關係에 對하야 何等明確한 結果를 엇지못하얏습으로 氣候問題에 黑點을 連想함은 다만臆測에지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現在 黑點과 直接關係를 가지고잇는것은 地球磁氣、地電流 極光(오ー로라)等의 現象이며이 無電障害와도 密接한 關係가잇다는것도 充分히 首肯되는바이다。

『데린자ー博士』의 報告에依하면 昨年十月十日頃부터 太陽面中央 附近에 黑點이 顯著하엿스며 同時에 無電通信이 良好하게되엿다 卽 普通時보다 短波通信이 잘들리게되엿스며 十月二十一日 乃至二十三日間에는短派振動數의 最大限度가 同所에서 觀測된 最高記錄에 達하엿스나 問題의二十四日이되자 突然通信可能의 振動數의 最大限度가 前日에 半數로 低下되고 二十五日에는 다시回復되엿다한다 그럼으로 어느振動數以上의 短波만이 障害를 밧는것으로 이것이 太陽黑點의 狀況과 直接關係가 잇는것가티 推測된다。

一漢詩一

『薔薇』一揖香 [illegible]

佳作之四之四

扶安邊山麓土山里 石樵 鄭填兌

滿架重重襲古芳
微風乍動十分香
淺華如濯文君錦
艶粉能啼漢女粧
墻頭每引蜂鬚掠
簾外時添燕翅忙
別有霏紅攢紫美
詩家題品與偏長

新刊紹介

▲鮮滿고무 七月號發行所 京城吉野町一町目一二七鮮滿고무新報社 定價十錢

▲ビタカ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本鄕三丁目 大藏出版株式會社 振替東京一六八四 定價二十錢

▲朝鮮農會報旅通報 第六十七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朝鮮農會報旅部 振替京城三〇三番 定價一部五錢

▲時調全集 朝鮮文學全集第一卷申明均編 發行所 京城府安國町一五三 中央印書館 發賣

普京城二二一七六番 定價一圓

▲藤井療法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永田町一丁目三 藤井療法本院內 蘇井會 振替東京七一〇三九番 定價二十五錢

▲蓮迦如來十地行錄 安震湖編 發行所京城府西大門二丁目二八 卍商會振替京城二三六三六 定價五十五錢 送料四錢

▲大成時報 第五十一號(月刊)發行所 平壤府南町三〇 平南農林聯合 定價一部五錢

▲朝鮮鑛物月報 第三十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一二三 朝鮮鑛物日報社 定價二十錢

讀者社交室

▲小生이(빠요린)을배우고저하오니 敎授하시여주시겟습니까 敎授하여주신다면 每日通學하겟습니다 下記住所로좀通知하여주십시요 府內[illegible]町四六の五〇 [illegible]

▲小生은 今年十九歲未婚少年이온데 商業學校卒業後[illegible]書店에 雇傭하옵다가 [illegible]하는關係 小生도 失職하얏는데 [illegible]의 諸氏여 널리 紹介하여주시옵고 採用하여주면 感謝하겟습니다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서요 高城郡邑內 [illegible]店內 [illegible]

▲[illegible]新聞第五三九七號에 記載된 大正二年陰五月十日이 陽曆六月十四日土曜이기에 玆에 通告함 [illegible]

▲欲知年所에 直接通知코저하오나 住所未詳故로未安하오나 朝鮮內에서(가망이)[illegible]如何한것을 何都이오며 [illegible]地方이用하는지 詳細히 下示하여주시[illegible] [illegible]北道[illegible]州郡[illegible]州面[illegible]里 金河有

▲平壤木鈴에게! 밧부신데 大端히未安하오나 陰曆大正六年二月六日이 陽曆으로 何年何月何日 何曜日인지 아르켜주섯스면 感謝하겟습니다 京城欲知生

▲六月五日 배꼽호生에게告함 貴下에貴著을 買入코저하오니左記住所로 古本稀度目錄與價를通知하여주시요 貴下에住所通知하시요 仁川府牛角里二二 朴仁植

▲童謠를쓰시는여러先生님께굿습니다 本人은今年二十一歲이온고 學力은겨우普校出身이오나童謠를배우고저하옵는데 어떤한書籍으로 배우면됨니까 여러先生님速히下敎하야주십시오(童謠生)

▲本人이새로考案한 布帛類를 特히滿洲方面에販賣코저하옵는바 現在滿洲方面에 貿易하시는분으로서 責任所를左記住所로或은社交室로通知하야주시면고맙겟습니다 京都中京區西ノ京樋ノ口町五 陳國晩方 金昞雲

▲四月十二日付貴社本紙의 滿洲國航空債券은 滿洲人以外는買入할수업습니까? 萬一關係업다면 諸先生任께서 本紙社交室을 通하여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債券申込所를 알여주시기바랍니다 關西地方의一讀者

▲文藝雜誌 〃文藝〃 〃文學界〃 〃文藝評論〃 〃文學案內〃 등創作號와밋 創作欄合本이 二三卷잇사온대 所用되시는분은 通知하시요 다른冊子와交換其他讓渡하겟소 奉天西北市場東方九七號 桂寶明方 聽晃生

▲朝鮮의 農家로漢記의 必要를痛感하야 每日의 作業日記帳과 其外諸般簿記帳을 求코저하오니 販賣所、價額、種類等을詳細히 下敎하시오 慶北英陽郡石保 一讀者

▲全南法聖浦 一讀者氏에게相議함 貴兄所藏하옵신 屛風用古書帖을 相當價格으로 讓受코저하오니 必히讓渡하실 價格을左記住所로 通知하시압 大邱無洲生

大邱府下西町十三 金佳坤

▲一、小生이 寫眞術을 自宅에서 배우고저 하오나 寫眞에對한 講義錄이나 或 冊子가 有하시면 價格及販賣所를 下敎하여주시옵소서 二、小生이 日本醬油製造를 經營코저하오니 讀者여러분이 여기에對한 書冊이 有하시면 價格과 住所를 下敎하여주소서 博川郡東南面一院洞 林栽源

▲力技에經驗이 만호신분에게 묻습니다 小生은比較的身長이크고몸이健康치못하오니 如何한運動을繼續하면 척재몸이붓고 健康한體格을엇겟습니까 不惜手苦하시와 本紙社交室欄으로下敎하야주시오면 感謝無至이겟습니다 振威 S·K·S生

▲鄭茂勝氏당신은 지금어느곳에계시는지요 사진한서로기념으로 노나가진후 못뵈온지가 벌서一年이나 되지요 社交室을通하야 당신의住所를 알고자願하니부되 알려주소서 或時讀者되시는분이계시거든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면 大端히感謝하겟습니다 京城府[illegible]町四六의四七八 金京集

本日

스포ー츠에 ●

이직구丹頂이잇다

30 75 1.20

盛夏炎天에도흩트리지지안는다、丹頂의良好 여름整髮은丹頂에限함

金鶴香水株式會社謹製

連載野談 (九〇)

布衾記

申鼎言 作 / 金龍煥 畵

선의 잇는런에 (八)

백운국선이 구십내에 당도하니 험한자연을 하늘에 다은듯이 처고 자일안 첫자리로부터 대당(大幢)、귀당(貴幢)、한산정(漢山停)、우수정(牛首停)등이라는 변한중앙부진 설흔여섯장군(三十六將軍)이하 여러군관이 각각자리에 안고 장막밧거이에의 좌우에는 배난국(倍難國)과 자주빗 큰소매옷(紫色大袖)과 거문가죽신(烏皮靴)으로 한껏 치려한 악사(樂師)가 큰북(大鼓)、박판(拍板)、무척(舞尺)、금척(琴尺)、대금(大笒)、중금(中笒)、소금(小笒)등 소위 삼죽(三竹)이란 군악(軍樂)의 악기를 가지고 좌우로 벌려섯고 또그압흐로는 기치(旗幟)와 창검(槍劍)을 벌려세웟습니다 그리고 위용이 진실로 으리으리하얏다.

그리고 큰 장막안에 벌려피 죽진한 푸른 차일과 붉은 차일 미레는 여러 국선이 회려한 국선복색에 각각 큰 칼을 차고 씩씩한 긔운을 띄우고섯스며 그장막 바그로는 힝오힙은 남녀의 무리가 한겹、두겹 겹겹히 싸혀 진실로 사람으로써 산과 바다를 일우운듯하얏다.

백운국선이 장중에 들어가 그 설흔여섯장군에게 차례로 군례를 행한뒤에 푸른 장막을친 자리에 와서 령을 기다리엿다.

얼마뒤에 집사(執事)의 청령소리와 함께 군악(軍樂)의 저소리와 세집노래(上院、中院、下院)를 비롯하야 노래일곡조(比目曲)、바위곡조(奇岩曲)、꾀꼬리조(黃谷清聲曲)등 악사(樂師) 옥보고(玉寶高)가 지은바설흔곡조의 군악소리가 차례로 울려나오며 처음、중간의 국선이 칼을 빼어들고 차례로나와 각각 자긔의 재조를 뽐내며 승부를 겨루기 시작하얏다.

이때 백운국선은 장성흔을 두손에 나누어 들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몸을 날려 번개오 두칼을 번드기게 되새 그 칼빗치 어떤때는 한줄기 흰무지개와 가티 빼치고 어떤때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검은구름과가티 때지게도하며 또 어떤때는 몸은 보이지아니하고 칼소리만 들니며 어떤때는 칼은 보이지아니하고 두칼이 부듸치는 소리만 쟁쟁이 들리엿다.

그럴때 마다 장막안과 장막밧게는 찬바람이 돌고 보는사람은 모두이 숭연하야 자마 눈을 바로 뜨지못하며 「귀신이다!」 「조화다!」 하는 소리와 손벽을 치는소리가 한데 어울려 우리와 가티 놉히 들리엇다.

여러국선이 차례로 나와 제조와 힘을다하야 백운국선을 당코저하나 일합(一合)이 지나지못하야 모두 칼을 버리고 두무릎을 꿀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항복하는 뜻을 보이니 보든사람들까지 모두 홍이살어젓다.

이에 설흔여섯 장군중에 첫재 장군이 몸을 일어 백운국선의 손을 잡고 『국선!。백운국선!。백운국선은 우리 신라조국의 국보(國寶)。장차 조국의 복이 클것을 미리서 축신으로 하례하옹』 하고 칼춤추는 노리를 그대로 끗을 마치고 장원이된 백운국선을 위하야 잔치상을 드리게 되엇다.

이때 버들아기의 부탁을 바든 자객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품고 여러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버들아기가 가르처 주는 그모습과 의복을 입은 국선을 자저보다가 그 국선이 꼿 칼을 귀신가티 쓰는 백운국선인것을 안뒤에는 스스로 간담이 서늘하야

『백운국선은 그 잘생긴것으로는 천상의 선관。그 칼을 쓰는 법으로는 귀신。내 비록 칼씀을 한다할지라도 내외 칼쓰는것은 법도가업는 칼。그 매고 오직 어두운 방중에 자는몸을 타서 찔으는것이 내외재주。그런아니라 백운국선은 진실로 귀남자。버들아기와 무슨 불공대천지원수가되엇는지는 몰으나 백운국선과가튼 귀남자를 죽이라는 버들아기도 죄악。그말대로 돈몸에 혹하야서 그런 귀남자를 죽이려나선 나도 죄악。허허。자마못할일。그뿐아니라 힘과 재조로도 당치못할일』

하며 그자객은 위선 백운국선의 잘난것에 마음이 취하고 다음에는 그신기한 굼솜에 간담이 서늘하야 죽일 용기가 돌지못하얏다.

이때 그자객의 염구리를 쿡 쥐어질으며 『왜。겁이나냐? 두눈이 동기눈가리 둥그레젓스니。』 하는 사람이 잇스니 그는 얼굴빗치 풀빗가티 질린 버들아기엿다.

『겁은 무슨겁。고까짓 젓내나는것을。』 하며 그 자객은 장담을하면서 버들아기를 돌아다 보앗다.

애초 그자객은 처음에는 백운국선을 힘으로 죽일수도 업고 죽이기도 악갑게 생각하얏다가 버들아기가 염구리를 쥐어질르며 충동거리는 바람에 『계집에게 돈을 바더먹고 그대로야 잇슬수잇나?』 하며 백운국선을 단연 죽이기를 또한 결심하얏다.

「돈구룸」 獨逸우파社의映畵로 獨逸의農民小說家 리히할트슈나이다・에덴코벤의第一回監督作品。主演에는 푸리췌・피셰와、파울・크링가、알라・그리프、루트・에베라의四人

海外映畵消息

三六—三七年度 『콜롬비아의』作品

콜롬비아映畵會社에서는 來年度製作豫定을 五十八本으로 正式發表하얏다 그中프랭크・캐프라作品二本 西部劇十六本으로 短篇은二卷자리三種 一卷짜리八種이나 總本數는發表치안헛다 또한短篇映畵의 種別은 前年度와 같다한다 다음來年度製作映畵中에서 題目이決定된主要한것을들면

『잃어버린地平線』 쩸・힐튼原作 프랭크・캐프라監督 脚色、노날드・콜맨主演

『하날로부터의銅貨』에 머뉴엘콘作品 빙・크로스비ー主演 音樂映畵

『新婦가간다』 『오라버ー수・로이콘原作、알프레드・E・그링監督

『마리아의冒險』 메이・에진흥原作 체스터ー・모리스主演

『征服의거리』 아벨・칸델原作 에드워ー드・루드빅監督 짐 아ー사主演

『쥬ー니아・리ー그』 크라렌스・B 케란드原作

『바ー리ー・푸ー처』 M・안더ー슨

『五人의처녀』 아리스・쥬ー어・미라ー原作

『아름다운女子』 덜를・하ー버ー ー드・그론와ー原作

『도수리의길』 에설・M・델作

『金色의蜜月』 ㄹ종・라ー드나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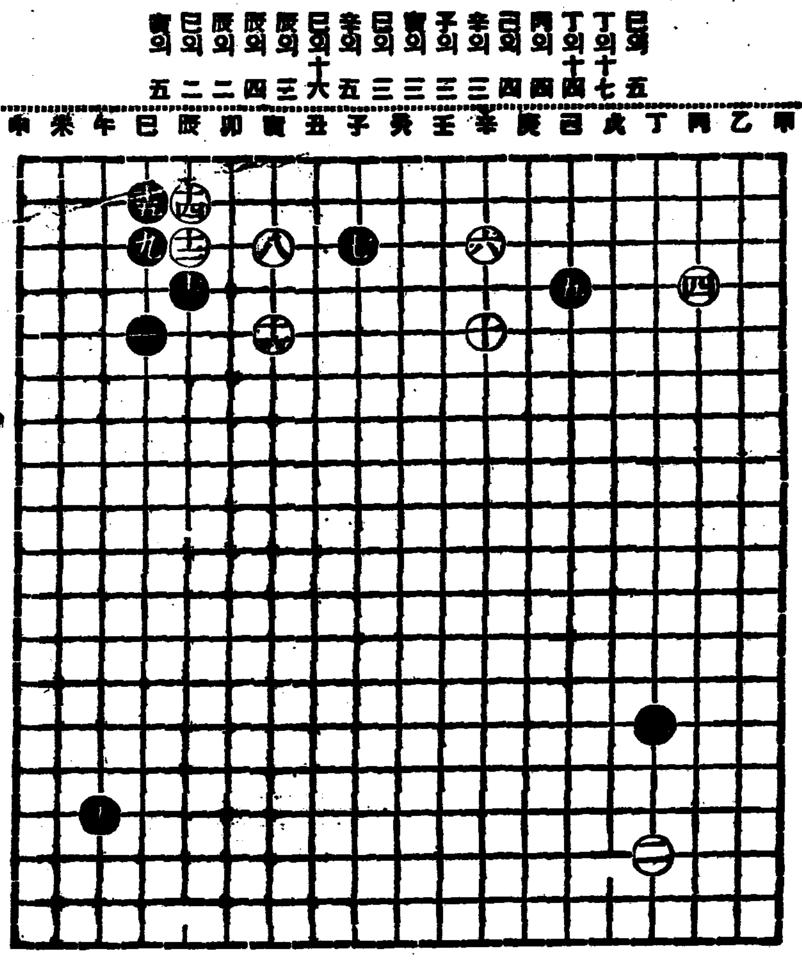
『데ㄴ저ー의騎士』 의울프・게송作

『八時六分列車中의殺人』 크렙표 와이라ー原作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孫億文 / 黑先 丁金春

一 巳의五
二 丁의十七
三 丁의十四
四 丙의四
五 己의四
六 辛의三
七 子의三
八 寅의三
九 巳의三
十 辛의五
十一 巳의十六
十二 辰의三
十三 辰의四
十四 辰의二
十五 巳의二
十六 寅의五



對局者談

黑巳의五 丁의十四는 近代改革을 [illegible] 例事慣用하이다 白辰의 三挾點은 最後에 [illegible] 로 自度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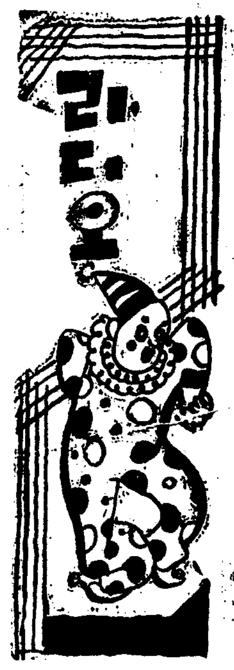
曆

八月十五日(土) 舊乙亥六月小(廿八日) 己巳・木・柳・收

●宗廟陵寢移徙裁衣動土上樑辰時 開市納財에宜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라디오

十四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바다는부른다〃 一景一鄭英翰作— 一配役一 明淑…姜玉順 그의오빠…文烈 紬姬…韓貞子 相浩 廉浩星 行商人…白樂鎭 新興童人會 指揮 鄭英翰 效果 李基東 音樂指揮 柳基興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〇〇分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八時 法律講演〃朝鮮의家族制度와親權〃 尹元上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清歌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九時 平壤念佛外 一、평양아리랑 二、자진염불 三、도라지타령 四、흥타령 五、밀양아리랑 細笛 姜錫洙 高一心 洋琴 李忠善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朴慶浩

◇同十時四五分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放送 國內放送(第一放送에依함)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童話劇 童心座

◇同十一時 (伯林) 實況

◇同六時二五分 (金)趣味講座 鎬太 勢岐

◇同七時卅分 (東)生活改善講座 田川大吉郞

◇同八時 (東)納涼이야기 晉堂軒圓玉

◇同八時卅分 (大)寄席中繼 北新地花月글리에서

十五日 (土曜)

◇午前八時五〇分(大) 野球試合實況 第二十二回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鄭琴湖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復習時間「國語」 市川榮三

◇同八時 週間時事 朝鮮日報 洪陽明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압강물흘러(李) 二、옹머새우네(高) 三、굿거리(李) 四、密月의大同江(高) 五、지란새(李) 六、故鄕으로돌아나(李高) 七、봉소식(高) 李銀波 高壽福

◇同九時 [illegible] DK管絃樂團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古談 李 [illegible]

◇同十時四五分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放送 國內放送 解說 飯田光太郎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 [illegible]

◇同十時三〇分(大) 家庭講座 國見太郎

◇午後零時五分(東) 經濟市況

◇同六時 童話 沈淸傳 山岡操

◇同六時二五分(井) 趣味講座

◇午後零時五〇分 (滿)管絃樂 哈爾濱交響管絃樂團

◇同六時 (東)少年音樂講座 吉原規

◇同七時三〇分 合奏 金戴鎬 [illegible]

◇同七時五〇分 (東)春내

◇同八時一五分 (大)[illegible] 浮世亭雲心坊外 柳家雪江外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津田淸美外

十六日 (日曜)

◇午前六時三〇分 (伯林)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放送 實況

◇同八時五〇分 (大)第二十二回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illegible]

◇同九時 [illegible]

第一放送

◇同一〇時 [illegible]

◇午前一〇時 (東)講演 [illegible]

◇同一〇時三〇分 (東)講演 富田幸次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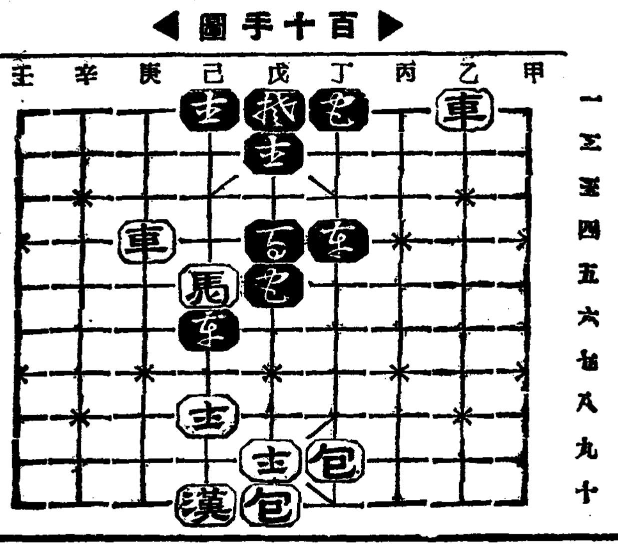
◇同一一時 (東)講演 上代文學 田中初夫

◇午後零時五〇分 (滿)管絃樂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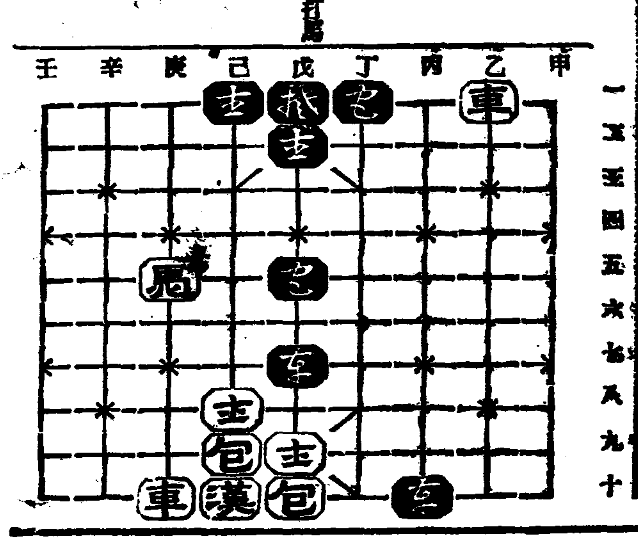
漢一兵 先手 李在鳳 / 楚 李英鎬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丁九包—己九
己五卒—壬五
己五馬—庚五
丁四卒—丙四
庚五馬—戊四卒
丙四卒—丙五
庚四車—庚五
壬五卒—戊五
戊四馬—戊六



CAS—15

サッポロビール
アサヒビール

都心의涼味
이한잔에넘는다

삐루의常識 (其一)

朝鮮麥酒株式會社

입에는齒磨體操
배에는마구닌教練

下虫劑
マクニン
마구닌
効果잇고먹기쉽다

堅實하고有望한

직업은장갑

專屬製造家募集

自動休針裝置의特許

本社 大阪市北區岩井町二丁目
福積編物工業朝鮮營業所
京城府鐘路六丁目初橋東

朝鮮日報 京販 電本(2)一五九七番

歌謠의源泉이요鄕土藝術의精華!!
八月十三日브터朝鮮名唱大會!
京城撮影所超特作第一回發聲
朝鮮語全發聲 春香傳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第二回作
朝鮮語全發聲 아리랑고개

키ー톤野球王

貫鐵町 電光三九五

女性의美와健康을
저어내는卵胞호르몬

月經不順과寡少

オバホルモン

國際標準品으로一位를占한結晶性製劑

오바호르몬은女性特有의機能을發現식히는重要한卵胞호르몬으로써、卵巢機能을賦活케하는活力減衰된諸臟器의機能을活潑케하며、新陳代謝를놉히며、女性의健康을保護增進식힌다。

女性神經衰弱、憂鬱症、月經痛
初老期、「月經閉止年齡」의頭痛、
心悸亢進、四肢冷感、視力減退

乳汁의分泌不足에도賞用된다。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96—880(0)

鰮魚豊漁繼續으로 沿岸漁民大活氣！

每日萬餘樽을漁獲하는데……

價格換算四萬五千餘圓

【雄基】웅기해안 일대에는 여름이래로 온어(鰮魚)가 잡히지안허서 수천어민들을 마음을 조리게하든중 십여일전부터 잡히기 시작하야 매일 만여통 가격으로 하면 사오천여원에 달하는 이대풍어(豊漁)라는데 궁주리든 어민들은 공전의 대활기를 띄게되엿다하며 지금으로부터 본격적 어획기라하야 일반어업자들은 만호과대를 가지고 잇다한다。

淳昌初有의 留學生學友會

【淳昌】장래조선사회의 주인공이될 중대한책임을가진 청소년들！ 그중에도 더한층귀중한 화원의 청소년제군에게 무한한긔대를가지고 잇는이때에 좋은힘잇게배우고 우정으로서 결합하자는 의미하에 전북순창지방에서도 학생학우회라는 한원그판이 창설케되엿다 순창지방에는 과거이십여년전부터 자층재외국학생이 생기게되여 현재에는 륙십명에갓가운 남녀학생들이 대학전문등 각종학교에서 학업에 정려하고잇슴으로 다시업는 길봉이라 하겟스나 한가지유감된은 지금것완전한 친목단체하나가 업서 하긔방학등 귀향한후에도 학생의힘으로서 비비히 할수잇는 사어하나를 경영치못하고 개인적행동을 취하여오든바 이에 대하여 면면고등、전문부학생측에서 생각한바잇서서 림병균(林炳均)외 삼、사인의 발긔로 지난팔월구일 오후이시부터 순창공보강당내에서 비로소 순창유학생학우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의한후 좌긔역원을 선거하고 동오후사시경에 원만폐회하엿다고한다

會長=吉野校長 副會長=林炳均(高商) 委員=金民熙(五高) 申宜雨(普專) 李昌宇(中央) 申鼎雨(中央)

京東鐵道脫線詳報

一名即死、十三名重輕傷

—原因은線路破潰—

【水原】지난십일일 오후열두시오분 수원역에서 출발한 경동까소린차의 운전수서본바(西本博)(二七)차장남수현(南淑賢)(一七)은려주(驪州)로향하야 나가는중 폭우(暴雨)로인하야 군데군데산이문허저 선로에덥힌것을 일일히헤치가며 진행하다가 수원으로부터 삼십팔키로인 천변카부선로를지나가랴할때 선로에 이상이잇는듯함으로 급히뿌레흙갈엇스나 바비탈을내려오든차는그 이상이잇는곳까지 구르자 무참히도탈선전복하는동시 전긔남차장은 용감스럽게도 그차속에서 자긔의부상당한줄도모르고 엽김에뛰여나와 한숨으로 십오정이나되는 오천역까지달여와 이소식을전하자 동역장이하 전직원이 당지경찰관주재소 직원과총출동으로 현장에달여와 차문을 깨치고 응급구호하얏스나 승객이십이명중일명은 차가전복되며 유리창이 깨지는곳에 몸을부대처 동맥이끈허저 유혈이랑자하야 겨우숨만부터잇스며 그외십삼명은 가지각색으로 중경상을 당하얏다는대 이급보를바든 리천경찰서에서는 당지 경성지방법원 리천출장소 중촌검사(中村檢事)가 리천의원의사 를대하고 자동차로 현장에 출장하야 응급치료를 가하얏스나 동맥이 끈허진일명은 약 한시간만에 무참히도 절명하고 그의십삼명중 경상자는 현장에서시료하고 중상자사명은 어천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바 그사상자의 주소씨명은 다음과가튼바 약이주일가량이면 전부완치되리라고한다 그러고 수원려주행복구는 심상열 오전여덟시오십분 수원역부근부터 중독되엿다

◇死亡者 驪州郡州內面[illegible]里 金永億의妻 李順伊(二七)
◇重傷者 同所 [illegible] 金[illegible](二三)
驪州警察署勤務 巡査部長 [illegible]
京畿道[illegible]面加佐里 無職 女 金[illegible](二一)
驪州郡州內面[illegible]里 無職 女 宋[illegible](二三)

全平壤合唱協會— 第一回大公演會 十五日夜白氏館에서

【平壤】평양합창협회(合唱協會)에서는 본사평양지국후원을바더 십오일오후여덟시 반부터 백선행기념관(白善行紀念館)에서 제일회연주대회(第一回演奏大會)를개최하기로되엿다 평양합창협회는 금년일월에 평양부의 성악가 륙십여명을 총망라하여 창립을보게된것으로 회관은 마포고념관에 정햇는데 평양악계에서단연권위를가지고잇다 연주대회를압두고 협회원륙십여명은 김세현(金世炫) 마두원(馬斗元)량씨의 지휘로 맹련습을 계속하고잇다 회원권은 삼십전 이십전으로되엿는데 본보독자에게는 삼십전을 이십전으로할인하게되엿다 평양에서 처음보는 대연주회인만큼 인긔는 비상히 놉하잇고 그수확에큰긔대를가지고잇다

阿吾地炭鑛에 住宅難이莫甚

【雄基】경흥아오지(慶興阿吾地)탄광은 해를거듭할사록 발전되여가는 과정에 잇다함은 더말할것도 업거니와 남북에서 모혀드는인구는 물경 일만여명에달한다는데 그들중에는 주택난으로 곤궁(困窮)하는 호수 일백팔십여호에 인구이백여명이라는 놀나운 수에달한다는바 그들은 창천을 바라보면서 대지(大地)를 요일한 주택으로 강(江)가에서 로숙생활을하는 그처참한 정상은 문외사회에서는 차마볼수 업다 하며 더욱장마때라 그들은 언제나 불안을 놋기고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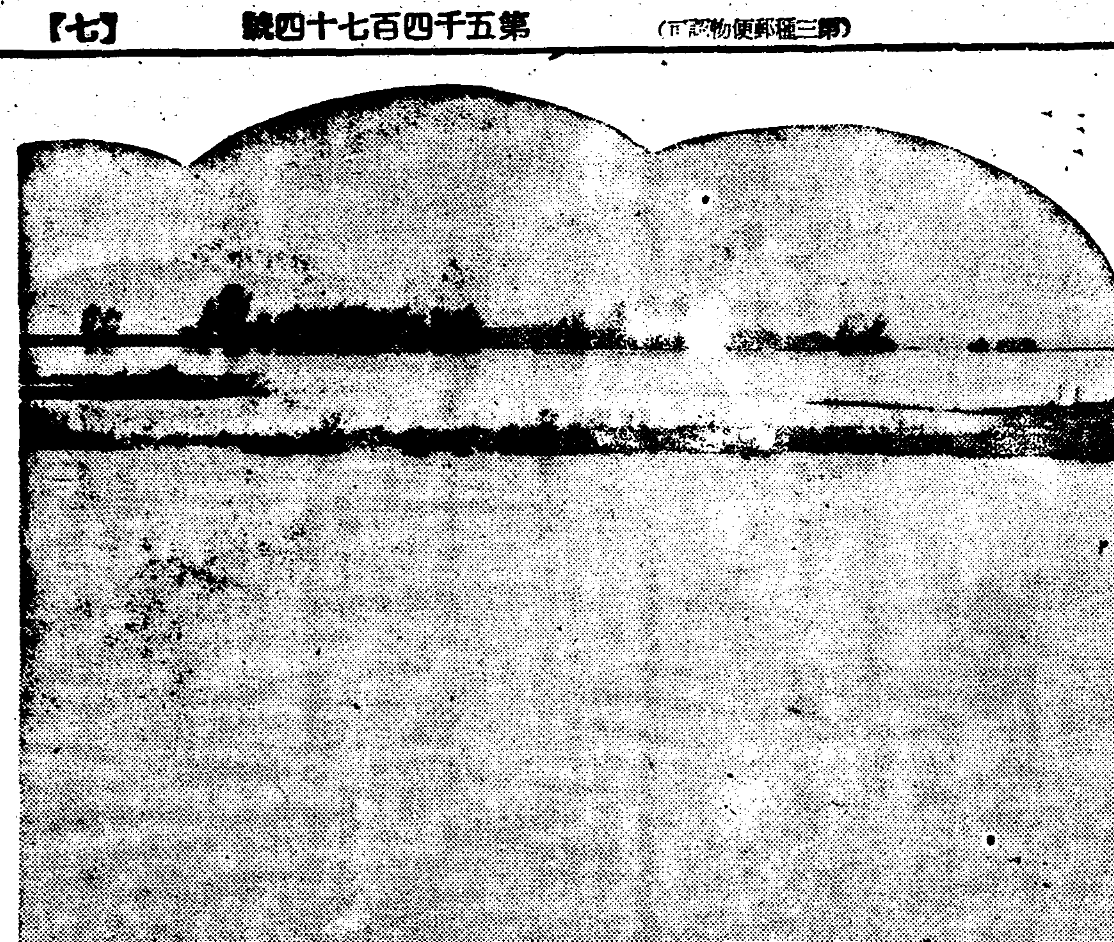
洪城地方一帶는 六十年來큰水害

家屋浸水、交通皆杜絶

【洪城】괴부충남홍성군고도면 상촌리(洪城郡高道面上村里)에는 지난팔일오전네시부터 일일오후네시까지 세시간동안내리는 폭우로인하야 제방이 결괴되여 삽시간에 시내는홍수 부근은 수국화하여서 침수답의피해도 막대할뿐만아이라 침수가옥이 백여호이오 유실된가옥도 삼호나되는데 그의구제책에 아프로큰문제이라하며 홍성시내는 홍수천제방이 간간히결괴되여서 침수가옥이만해지며 도괴된가옥이만해집으로 천변의거주민들은 매일 이사또는세간을 타처로 운반등 큰소동을 이르키고잇는데 감면초흐에 수해가막대하여 그의피해액은 수만원에 달하리라는바 아직도 강우는게속중이고시외각처에교통도 두절되여잇다고한다

火藥滿載한— 貨物車의顚落

【大邱】경북경찰부보안과에 도착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정광산(金井鑛山)자가용 경북이백팔십구호의 화물자동차를 운전수대구부금정(大邱府錦町)입정목 상전삼일(桑田誠一)(二〇)이가 십일오후두시에 화약(火藥)상자십봉을 실고 대구를발하야안동을지나 금정광산으로 가는도중 오후 아홉시경 봉화군봉화면우곡다덕(奉化郡鳳城面愚谷多德)재에서 전복하엿는데 운전수는 이로말미아마 젓가슴과 복부에만흔타박상을 입엇다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약이폭발안되엿다는데 전복된 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한다



◇……水國化한金、萬平野

瑞興에늑대騷動 小兒二名咬殺

官民協力討伐에努力

【瑞興】약이십일전에 늑대가출현하야 서흥군용평면월탄리 리창원(李昌元)(四)의 어개를 물어수상일후에 죽게하여 대소동을일으켯더니 또지난십일에 동군동면범안리(泛雁里) 전봉암(全奉岩)의 딸 순녀(四)의 목을물고 산으로올라가는 늑대를보고 따라갓스나 찻지못하고 그이튼날 근처산중에서 그아이머리와 다리를찻고 공경찰서에 보고하자 동서에서는 근처포수와 소방수백여명을다리고 우중에 늑대토벌을갓스나 소득업시 돌아와근동애이가진부모들은 공포에싸혀잇다고한다

偉哉！孫、南兩君

祝賀聲八域에震動！

新市 [illegible] 오후세시에 본사 호외를 본신시 시민 일동은 신시유지원에 소년군일동과 시민 다수가 집합하야 손긔정 남승룡량군의 전승을 만세삼창으로축하하고 소년군을 선두로 시가를 긔행렬한후 신시시민 일동급소년군일동이 손남량군에게 축전을 본보신시지국에 의탁하얏다

金泉 올림픽마라손에 출전하야 당당히우승한 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량군의 승리를 축하하기위하야 김천(金泉)시민일동의 일홈으로 손긔정본가에 축전을하고 십일일오후칠시부터 덕화원(德和園)료리옥이층에서 시민다수참석하에 성대히축하회를 개최하고 동십시경에 폐회하엿다

元山 세계올림픽 마라손에서 일착의 월계관을 획득한 손긔정(孫基禎)군과 삼착으로입상한 남승룡(南昇龍)량군은 조선이나흔 새로운 영웅으로 추대되는터이거니와이 축전으로 그들에대한 축승회를 개최하고잇는이때 원산에서도지난십일일오후 네시부터 원산제일공립보통학교강당에 유지제씨가모여 량군의축하회를 개최하는일방 백림에다 축하전보를치기로하고 산회하얏다

清津 조선이나흔 천재마라손의왕 손、남(孫、南)량군이 국제무대인 백림(伯林)올림픽대회에서 열국의강적을 물리치고 영예의우승을하엿다는 전보를밧고 량군의 압날을 축복하며 아울러 조선의스포츠발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손남량군의 승전축하회를 청진에잇는조선중앙 조선 동아삼지국과 청진체육회주최로 지난십이일밤 시내복생루에 유지다수가모히여 대성황리에 거행하고 손남량군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

定州 손남량군의 세계올림픽제패를 축하하기위하여 본보정주지국주최로 지난십이일오후일시부터 손남량군전승축하회를 정주백화점식당에서 개최한바 민간유지 백여명이참집하여 축배를 올리엿는데 즉석에서 축하회의명의로 손남량군에게보내는 전승축하전보를 본사에다전하여 손남량군에게전달하여주기를 의탁하엿다

寧邊 [illegible] 장의긔염을 토한우리의 선수 손 남(孫、南)량군이 「마라손」제패(制覇)의원거관을획득하엿다는 희보가녕변에드려오자 환희에접정한 녕변유지들은 서본고자단과 련합하야십일일 손、남(孫、南)량선수에게축승전보를 하엿다한다

水橋 수교에서는 시민일동이 총동원하여 우리의지보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군의 우승축하회를개최하엿는데 거리거리마다 커다란「포스타」를 부치여 축하하는뜻을 표하고 또는본사를통하야 일방축전을보내며손、남량군의용맹을 성축하는뜻으로 일동이만세삼창으로 산회하엿다

安東縣 안동조선인 청년회와안동조선인 체육회에서는 손、남량군의 마라손우승을 축하키위하여 지난십이일 오후칠시부터 안동공회당에서 시민이백여명이 모히여 김창(金昶)씨개회사로 개회되여 유지의축사등으로 우승축하회를 성대히 거행하고 동구시경에 폐회하엿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前川支局 位置 湖浦線前川驛前 支局長 金鳳祥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京南支局 支局長 成俊德 右解任 前京南支局區域은今後本社京城販賣所에서直轄함

金海支局 位置 金海郡邑內 支局長 裵鍾璡 右任支局長 支局長 裵鍾澤 右依願解任

謹告

翠野支局 總務兼記者 朴奎欽 右新任 總務兼記者 朴基亨 右解任

長箭支局 總務兼記者 許于[illegible] 記者 金南哲 右新任 總務兼記者 盧泰容 右解任

黃州支局 記者 尹明善 右新任

江華支局 電話 三一番

高靈支局 顧問 李憲珙 同 朴榮甲 右新任

高城支局 高城駐在記者 梁正來 右新任

金化支局 記者 徐顯浩 右新任 記者 申宗熙 右解任

各地洪水亂慘報

金、萬平野水國化 農作物被害多大

一時交通도全部杜絶

【金堤】전북김제지방에는 지난십일밤부터 폭우가 낼이기시작하야 아직도 개이지아니하엿는데 김제평야는 전부침수되엿스며 김제(金堤) 전주(全州)간과 김제원평(院坪)간의 정긔자동차운전도 불통하게되엿다하며 김제역전은 하수도가 불비하야 침수가옥이 삼십호나되다고한다 기타 농작물피해가 막대하리라는데 십이일오후칠시까지 날인우량이 일백구십미리가량이나된다한다

강상류를횡단한 경목선도로에인도교가 업는관계로 언제나교통이회복될는지 알수업다고한다

參禮에도水害 全、參交通杜絶

【參禮】지난십일일오후칠시부터쏘우로쏘다지는비는 그이일오후다섯시까지 계속하야 삼례평야의 경지면적삼백여정보는 락량에침몰리고 삼례시내에는 와호의침수가옥을내이고 전주삼례간의교통은 두절되엿스며 더욱이만경

自働車路不通

【淸州】금번 장마비는 충북청주에도 상당히 컷섯다 조철자동차(朝鐵自動車)는 청조선(淸鳥線)외에는 청충선(淸忠線) 청부선(淸芙線) 청미선(淸米線)이 전부불통이오 보은자동차(報恩自動車)도 청보선(淸報線) 청문선(淸文線)이 모다 불통이다 충북선도 청주간일시는 연착까지잇섯다 청주신축제방은 일시는 매우 염려되엿스나 무사하얏스며 청주일대에는 대단한수해는 업는모양이라한다

錦江增水二十尺 菁浦一帶孤島化

【江景】지난십일일오후칠시경부터수일내로 내리든폭우로내려퍼붓기시작하야 밤이새도록 십이일오전까지 일백팔십사미리를록주하고도 계속하야 세우로비는 나리는중인데 강경시내는 제방이완정되야 침수될념려는 아직업스나 황금정일부와 남정일부의세민부락일백오십호는 모다친수되엿스며 강경대안의청포(菁浦)부근은 호안공사가업서서 십이일새벽부터 증수되는물이이십여척이나되야 속속피난을하는중이나 락루에구조선의 래왕이지난하게되여서 십이일오후오시까지에 전부구하지를못하야 집웅우에서 사람살리라는비명소리가 비절처절하게들릴뿐으로 각각그들의운명은위험하여간다

錦江刻刻增水

금강의증수는심각 척사촌의수위로서 소화팔년대수해당시의 최고수위이십삼척을 박근하고잇는중 십이일 오후세시경은 쏠쏠이되고도 물은점점 증수하여 감으로 이만강경읍민은 공포와 불안중에 싸여잇다。

江景平野浸水 排水無路로—

강경평야전부는 십이일오후오시경 전부침수되엿든바 각제방의 수문을 전부 폐쇄하고 수위는 하천이 약사척오촌에 노프므로 배수할수가업시되야 좌이대사하는겨으로 비가 온는대로 물이 불어서 전부 침수되고말엇다

今十五日 午後一時半부터 「大同江越便球場에서」

全平壤"인도아"野球大會

◇主催 關西體育會日光浴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75】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준상은 혼자 갓가 제방으로 걸어갓다。푸르고 부드러운풀이 멘판사이로 사람하나 걸어갈만한 가는단 길이 꼬불꼬불어간 데를 준상은 이슬에 저즌 풀닙피 발에다리에 스뢱스뢱 스치는데로 저녁바람이 선선한줄도 모르고 걸어올라갓다。거지들이 모긔업는 모래톱을 차자서 하로ㅅ밤을 새일 준비를하고잇섯다。제방 및 웅덩이에서는 개구리들이 소리를 놉혀서 울엇다。아마 올때 마초아 그물에 고기를 떠러 가는것인가 강으로 배 두어척이 삐걱삐걱 저어나려오는것이 달ㅅ빗속에꿈가티 보엿다。어떤 젊은 남녀가 어깨를 딱부치고 준상과반대방향으로 걸어나려오다가、준상을 불의에 발견하고 놀란드시 두어걸음 서로 떨어지는것도 보앗다。

「준상이 아닌가」

하고 저편 남자가 소리를 처불렀다。

그것은 명훈이엇다。

「금시 저긔 잇더니 어느새에 이리로 돌아와서?」

하고 준상은 겨레선 여자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면서 명훈의 아페 섯다。

「저는 먼저 가오」

하고 그 자주ㅅ빗 왐피스 입은 여자는 두사람에게 인사하고 아프로 가버린다──

「아、여보세요。혼자 가실래야요?」

하고 명훈이가 두어걸음 그여자의 뒤를 따르면서、

「저 모래톱에랑 솔바테랑 거지들이 득시글득시글 해요。내 모서다 들이지오」

하는것을 그 여자는 뒤도 안돌아보고、

「괜찬아요」

하고는 휑하게 가버린다。

「그이가 누군가」

하고 준상이가 물엇다。

「몰르지」

하고 명훈은 아직도 아까온드시 그 여자의 뒤를 바라본다。

「몰라? 모르는 여자허구 이 밤스중에 산보를 다녀? 이러케 으슥헌데로」

하고 준상은 명훈을 흘려본다。

「피차에 마찬가지지。내가 모르는 여자허구 다니면 저 여자도 모르는 남자허구 다니는것아니야? 그러니까 사식이란 말일세。」

「이 사람아。그러기로 누가보드라도」

「보기로 어때?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것은 하나님의뜻이 아닌가。」

「그래。저이가 자네가 사랑하는 여자야?」

하고 준상은 놀란다。

「펜찬하요。쉬안해」

하고 명훈은 고개를 기웃거리더니、그 여자가 보일락 말락한 때에、

「굿나잇 마이 라브」

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팔을내두른다。

「그런데 설명도모르고?」

「이 사람은 왜 이리 설명에 상성이야? 설명을 알고모르는것이 사랑에 무슨 상관이냐말일세。눈과 눈이 마조치고 손과손이 마조치고──이러면 고만이지 설명은 알아서 무엇하느냐 말야。혼인신고나 하게되면 설명삼자도 필요하고、사주팔자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해수욕장에서 하로ㅅ밤 산ㅅ보좀하는 사랑에 수고스럽게 뉘대이시오? 저대이시오? 할것은 무엇잇나。애초부터 저런것과 혼인할생각은 업스니까。」

「이 사람。그러면 남의 여자를 하로ㅅ밤 끌고돌아다니다가 버리고 만단말인가、앗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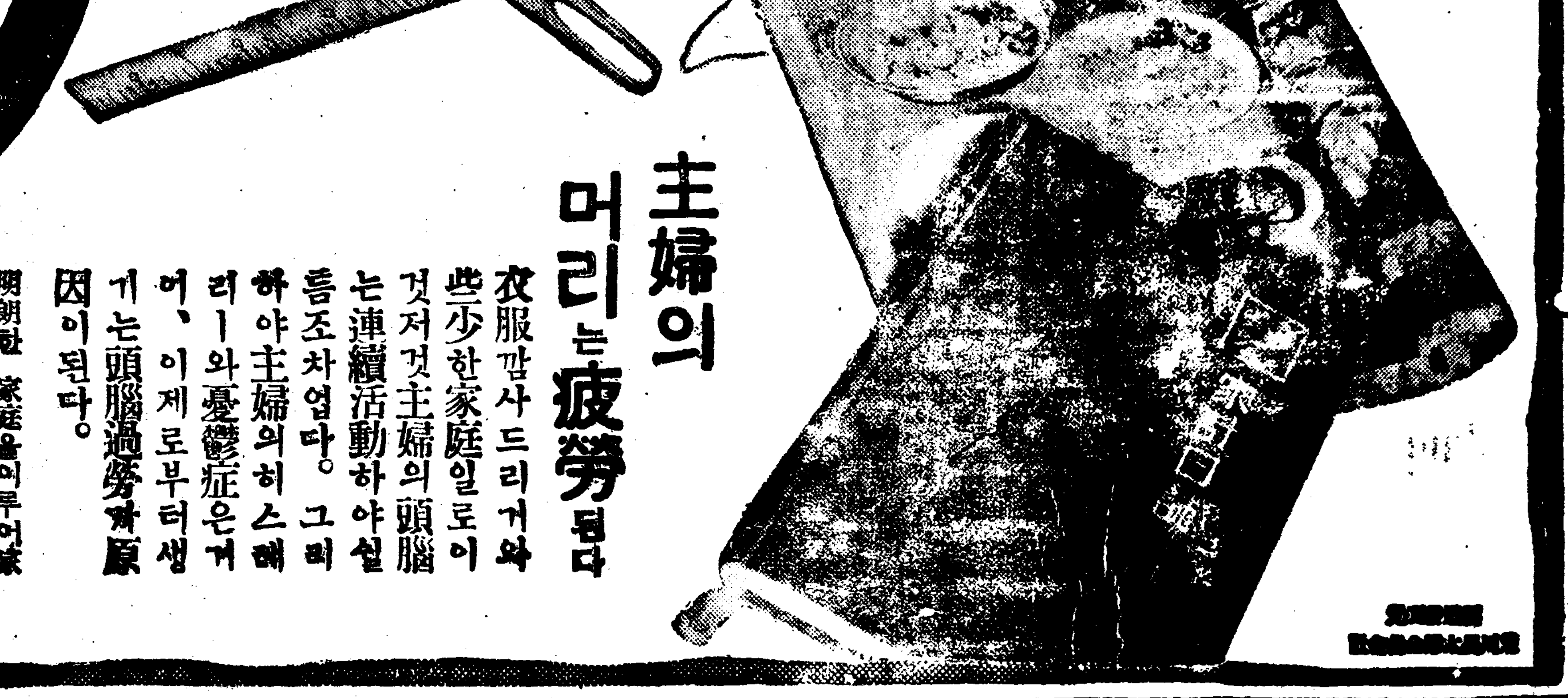
하고 준상은 두어번 고개를 흔든다。

「안버리면 그걸 다 어떠케? 한번 눈에 든계집애를 다 안해를 삼다가는 안해 두는 팡이 명영만 해도 못자라겟네。오늘에는 오늘의 애인이 잇고 명일에는 명일의 애인이 잇다。이것이현대 연애관이란말일세。자네와가티 한여자를 보면 거긔 착달러부터서 후후한숨을 지고 다녀서야 어듸 사랑이 힘이들고 픔이 들어서 헤 먼올수가잇나? 그것은 어느 정을 보나 불경제란 말이어든 이 밧븐 경제시대에 비생산적 연애에 시간、정력을 소비해서 쓰겟나。그저 곤한 때에 차 한잔 마시는 격으로 연애유희를 할것이란 말이지、하하」

하고 도 그 여자가 가면 곳을 바라본다。

머리가압호고疲勞된때에

ノーシン



主婦의 머리는疲勞된다

衣服깜사드리거와些少한家庭일로이것저것主婦의頭腦는連續活動하야실틈조차업다。그리하야主婦의히스테리ー와憂鬱症은거어、이제로부터생기는頭腦過勞가原因이된다。

明朗한 家庭을이루어家長이돌아오기를기다리고、子女들을養育식히는것은、그날그날의疲勞된氣分과頭痛、頭腦疲勞를解消식히며、主婦自身에于先頭腦가 明快하여지지안어서는안된다。

그런데는 ノーシン을服用하는것이 第一良策이다。

ノーシン은 從來의頭痛藥과判異하야오직 頭痛을速히治療할뿐아니라、다시 頭腦의疲勞를恢復식힐獨特한 作用을갓고잇다。

特히常用하면 神經의營養을도으며、心臟을튼튼케한다 또한胃腸等에는 安全無害함으로서 頭腦의常備藥으로써 理想的이다

主治: 頭痛・頭腦疲勞 頭重・心氣衰弱 上氣・眼內腦塞 眩暈・船車멀미

定價 .30 .50 1.00 2.00 5.00

上半期經濟回顧 (上)

加藤朝銀總裁 述

國行第五十四回 株主總會 席上에 報告한 바에 依하야 本年上半期間의 朝鮮, 滿洲及中國方面의 經濟界大勢와 當行營業概況을 敍述하면 如左하다.

朝鮮 一般產業은 依然히 進步의 步調를 進하는 同時에 農村의 自力更生運動은 漸次其效果를 收하고 鑛工業方面은 未曾有의 盛況을 示하얏다. 이제 二三重要統計에 就하야 其狀勢를 見하면 米는 昨年의 實收高 一千七百八十八萬石으로 前年에 比하면 百十六萬石의 增加를 示한 同時에 米價가 騰貴하야 高價를 呼하고 從하야 當期中의 朝鮮米移出高는 五百二十五萬石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約三十萬石의 增加를 示하는 中이오 其外大豆, 雜穀, 棉花, 繭類等도 大體로 前年의 豐收를 受하야 農家經濟를 潤케하얏다.

一方鑛業界에 있어서는 作業鑛山의 增加와 金價의 高位를 背景으로하야 增加되고 特히 產金은 最近 東北地方 諸鑛山의 開發과 함께 顯著히 增加되고 各種鑛業은 內地, 滿洲等으로 進出하고 東北鑛業은 咸北等의 大規模의 開拓이 進行되어 各種事業의 勃興이 著하다.

地方貿易에 있어서 當期中의 朝鮮貿易額은 輸出이 三億一千百萬圓, 輸入이 三億六千四百萬圓에 達하야 前年同期에 比하면 各各 增加를 示하얏다. 其中對外國貿易은 前年에 比하야 相當히 增加하고 一般工業은 依然好況을 持續하야 事業界의 狀況은 一層活潑하얏다. 當期中新設擴張의 會社는 四百十一, 此資本一億一千四百百十七萬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社數六十八, 資本二千七百二十三萬圓의 各各增加를 示한 同時에 內地資本의 進出과 各種工業의 勃興이 顯著하다.

各種金融의 狀況을 보면 前年同期末에 比하야 預金은 約九千九百萬圓, 貸出金은 六億七千百萬圓에 達하고 都市의 金融은 大體로 緩和하얏다. 一般商業은 好況이오 物價는 騰貴하야 朝鮮經濟界의 前途는 大體로 樂觀을 許할 것이라 하겟다.

農產物筆頭로 世界物價續騰

京城은比前年同月九分의暴騰

西班牙內亂도一因

【日本銀行調查】七月의 內外物價指數對照表에 依하면 東京, 倫敦, 紐育의 三市는모다 五月末의 記錄的高位를 示키에 至하얏고

【朝鮮銀行調查】七月의 京城都賣物價指數도 暴騰되엇다 이리하야 世界主要國은 佛國의 獨低落을 除外코는모다 物價高騰하고 特히倫敦은 一九三〇年以來高記錄을 示한바 이제그原因을보면 東京과 京城은 農產物價昂騰이主因이고 紐育은 旱魃影響에依한 農產物價高에因한것인데 巴里(六月末)만은 法貨少康으로 一般物價의 一時的低落을보앗는데 全國產業活動이 一時停止되어던 總罷業影響은 아즉나타나지안햇섯다。

그리고 前記日、英、米三國物價昂騰에는 西班牙內亂勃發에依한 國際商品의 昂騰도原因되리라한다。

▲日銀調查(一九一四年七月基準)

	七月	六月	五月
東京	二〇七·〇	二〇四·〇	二〇三·〇
倫敦	一〇八·三	一〇六·〇	一〇五·四
紐育	一二六·五	一二三·一	一二一·八
巴里	—	三七二一	三七七一

▲朝銀調查(明治四三年七月基準)

	七月	六月	前年七月
京城	一九二·三	一八四·四	一七六·六

卽東京은 比前月一分九厘強 倫敦은 二分一厘六毛 紐育은 三分의大幅昂騰이고 京城은 一分一厘의小昂으로서 比前年同月은 九分強의 大暴騰이엇다

個人金利低下

昨年調查內容

【總督府調查】昭和十年中의 全朝鮮個人間 貸借金利를 調査하면 다음과 가티 低金利時代를 反映하야 封建的高利貸에도 金利低下의 新機運를 誘致한것이 看破되어다

一、市場貸(元金十圓에對한月利)十年中의最高八分四厘 最低五分二厘 普通六分六厘로 前年에 比하야 最高二分五厘、最低一分 普通一分五厘의 各大幅低下

一、普通貸(元金百圓에對한月利)

新正租初賣買

長湖院에서斤十錢

各地의 水害, 旱魃等으로今年米作이 念慮되는 이때에京畿道長湖院에서는 벌서新正租의賣買가 되엿는데 初市勢는斤十錢이라고

(가) 日本內地人間=最高三分 最低一分四厘, 普通二分一厘로 前年에 比하면 最高保勢, 普通과 最低는 各一厘低下

(나) 朝鮮人間=最高 三分九厘 最低一分八厘, 普通二分六厘로 最高, 最低는保勢, 普通은 一厘低下

(다)日本內地人 朝鮮人間=最高三分四厘, 最低一分六厘, 普通二分四厘로 最高, 普通은保勢, 最低는 一厘의低下

그리고 市場貸에比하야 普通貸의 金利低下가 遲遲한點이 注目을 끄혼다고 한다

朝鮮淺野洋灰

三百萬圓增資

淺野洋灰에서는 宇部洋灰 ...

特殊銀行總會

朝銀四分配當

【東京電話同盟】朝鮮銀行의 第五十四回定期總會는 十四日 午前十時부터 東京支店에서 열고 다음과 가튼 處分案을 決定하엿다

◇損益金處分案(以下單位圓)

當期純益金 三、五三六、七四六
前期繰越金 三、〇三五、五〇三
合計 六、五七二、二四九

◇差引

當期純益金 三、五三六、七四六
前期繰越金 三、〇三五、五〇三
合計 六、五七二、二四九

◇其中

損失補塡準備金 三五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三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及交際費 六〇、〇〇〇
舊株配當金(年四分) 一、二〇〇、〇〇〇
新株配當金(年四分) 一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三、二〇二、二四九

△△△△△△△

朝鮮銀行의 上半期末利益金은 純益金五百八十萬圓公表純益九十三萬八千圓을 計上한바 그밧게債權의銷却四百十一萬圓 有價證券銷却七十萬圓을하고 此等을 合算하면 五百八十萬圓以上의純益이 잇다고

殖銀九分配當

殖銀第三十六期定期總會는 十四日 午前十時十五分 同行會議室에서 有賀頭取의 議長司會에 열고

一、第三十六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第三十六期利益金處分案議決의件

三、定款變更의件(副頭取設置와 債券發行期間變更의件)

을附議하고 모두 異議가업시可決되엿다

缺損補塡準備金 四〇〇、〇〇〇
配當平均準備金 一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及交際費 九〇、〇〇〇
舊株配當金(年九分) 四五〇、〇〇〇
新株配當金(年九分) 六七五、〇〇〇
特別積立金 一〇〇、〇〇〇
後期繰越金 一、一五四、二〇一

◇此分配計算

合計 二、九六九、二〇一

白金市價暴騰

東京서 在荷薄과 某有力側買占으로 暴騰一貫인 白金市勢는 京城市中도 十四日은 買十六圓 賣十八圓으로 前日에比하야 買五十錢高 賣一圓高의 暴騰이엇섯다

◇差引

當期純益金 一、五一二、五七四
當期總損金 一、四二一、五二二
前期繰越金 一、〇六六、三三七
合計 一、〇一一、〇六九

決算 當期純益金 一七二、九〇、四五〇 金處分案은如左(單位圓)하고同二十分에 散會한바 利益決定

四、理事一名缺員에 補缺키爲하야 候補者二人選擧의件=有賀殖銀頭取名으로 金子定三、伊森明治兩氏를指名

五、監事二人任期滿了함에 對하야 改選의件=議長一任으로 菊池一德 原邦道兩氏가 重任

六、故植野勳氏遺族에 弔慰金贈呈의件=은 重役會一任으로 決定

新株(二十七圓拂込)의 第二新株(二十五圓拂込)의 三株主와 各現在所有株二株에 對하야 減資後의 同拂込新株一株를 交附키로되엇다 減資에 依하야 생긴 二百二十六萬五千圓을 繰越損金二百萬圓을 全部償却하고 남어지는 社內充實資金에 充當하야 不良資產을 버리고 今後 多少의 株主配當을 復活키로되엇다고

棉花共販

價格改正?

今月下旬에協議

棉花의 共同販賣價는 今日下旬의 協議會에서 協議할터인데 前年의 協議會서 그뒤에 共販의 方法에 改訂을加하자는말이 잇서 이機會에 右改訂이 잇슬모양이다 卽 從來 米棉의 阪神輸入採算을 基準으로하고 大阪、神戶의 運賃諸費用을 控除한것을 朝鮮內共販價로 한바 今年부터는 朝鮮間의 運賃諸費用을 朝鮮內 紡績工場渡의 計算으로 할모양이라고한다

總督府財務局

國策豫算查定開始

財務局에서는 總督府明年度豫算에 先驅하기爲하야 最首拓務省에 廻付한 國策豫算中

一、產業資源開發에關한事業

一、交通、通信整備에關한事業에 對하야 明年度新規事業으로關係各局에서 提出된 原案에對하야 十四日부터查定을開始하엿다 國策豫算에 關하여는 늣드라도 二十日頃까지에 查定을終了하고 繼續하야明年度一般新規事業查定에着手하고 總督、總監着任을 기다려다시 檢討한後 今月中에 拓務省에廻付할豫定이다

日米爲替少高

【京城十三日發同盟】十三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十三仙으로 一仙高 買二十九弗四十一仙으로 一仙高

▲東京爲替(十四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三 買 二十九弗六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十三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十四日)

對米 賣 二十九弗八分三 買 二十九弗六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十三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人絹輸出統制에

朝鮮도共同步調

聯合會가朝鮮에要求

人絹輸出은 各國關稅障壁으로輸出統制가 强化되야 人絹織輸出聯合會에서는 그統制輸出策으로 이번輸出에잇서 碼一錢의 高率輸出統制料를 賦課키로 되바이에 伴하야 日本內地輸出品은 勿論 朝鮮經由輸出及朝鮮產品의 朝鮮外輸出이 될念慮가잇슴으로 拓務省을 거처서 朝鮮總督府에對하야 朝鮮側에서도 이것과同一步調로 統制强化를 圖함을 要求하엿다 朝鮮에서는 人絹關係各社에서 同業組合組織이 進行하야 統制가 進行中이므로 高率統制料의 賦課에는 問題이나 日本內地와 共同戰線을 삐흠어 輸出統制의 强化를 圖케될것이라고한다

工業用造林計畫

팔프原料十六萬噸의增產

總督府木材資源策

山林資源의 重要性은 最近工業發展에 伴하야 用材林時代에서 工業資源時代에入하얏는데 總督府農林局에서는 이 重要性에 鑑하야 工業資源의 恒久根本策을 研究中으로 解決策으로서 如左한 諸案이 研究되는中이다 卽팔프原料로서 朝鮮으로서 十六萬噸을恒久的으로 增產할을 理想目標로하야이때문에

一、一大工業造林國營計畫=年年二萬町步 約二十五年間造林하야 二十五年後 부터右增產을 計畫함 國營으로이것을行할時는

總豫算二千五百萬圓餘를要할

一、森林金融兼營 大森林民間會社=國有地를國家이現物出資하고 大財閥의 出資를要求하야 現實의 利害를 超越하야企業

一、補助植林의勵行=民有林을積極的으로 植林을 勸成하고 勸成補助金交付

等의 各案이 比較討究되는바 第一案、二案은 豫算關係上 困難하고 第二案은 民間資本의 果然應募問題가 現在한터로 總督府의 木材資源恒久對策에의 關心이 注目된다 한다

窒素販賣會社

所謂慰勞金支出

日窒本社와 高價契約品에 對한 値下對策을 協議키爲하야 渡阪中의 同社窒販專務는 十三日朝歸京한바 同氏가 渡阪協議한結果 高價契約品의 値下로 因한 各特約店과 農會、金組의損害에 對하야 硫安共販組合의協定에抵觸치안는 最大範圍에서 所謂慰勞金의 일홈으로 十四、五의兩日中 各各支出키로 決定하엿다고 한다

鮮滿開拓減資

鮮滿拓殖會社에서는 九月中旬 臨時株主總會를 열고半額減資를 하기로 決定하엿다 그結果現在의 公稱資本金八百萬圓을 四百萬圓으로하고 拂込資本金四百五十三萬圓을二百二十六萬五千圓으로 하게 되야舊株(五十圓全額拂込)第一新

重要商品界事情

人絹의裁定案

發表待人氣로

人絹聯合會對昭和及大陽레은의紛爭은 不遠에 商工省의 裁定案이 提示되야 解決을 豫想하는데 商工省의 裁定案이란것은 大體 어떠한 內容의것인가

◇

그內容如何에 따러서는 人絹市況에 밋치는影響이 적지안을것이라고하야 傍觀의傾向이 만타 目下 憶測이지만 有力히傳하는것은 人絹聯合의 操短率은 그대로하고 增錘制限에 爾少會社의緩和를 認하고 昭和와太陽이 그率에 依하야 人絹에加盟케한다는點에 歸着지안흘가 하는것이다。

◇

어떠튼지 裁定案의 內容은 以上의制限을 加케될은 到底히 생각할수업다고 意外弱氣的으로 豫想하는傾向이 만흔모양이다。

◇

以上과 가튼狀態이므로 發表를 본뒤에 動하랴고 하는 人氣가 만흔때문에 人絹市況은下商重을 물하는것이라고…

株式

閑散이나少堅

商況【十四日】

前塲閑散

今前塲은 水害로 日本內地와의 電信故障으로 人電이 적을뿐아니라 東京、大阪市勢不變으로 全然傍觀의大閑散이엇스니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二十一圓七十錢 大新十錢高인 六十七圓十錢 鐘新二十錢低인 百六十圓丁에各引되고 朝新三十圓九十錢 日產七十八圓七十錢 日產新二十五圓八十錢이엇섯다

後塲少堅

後塲은 郵船高等으로 少堅이엇스니 東新百二十二圓十錢 鐘新 百六十圓丁 日產七十八圓五十錢 日產新二十五圓七十錢 日鑛百七圓丁 朝新三十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大新六十七圓丁 北鐵二十四圓五十錢

强弱共無閑散

사자니 아메不安이 그대로橫在하고 팔자니 원악價値가 低한까닭에 底固味와 相俟하야 雖賣難買로 雖伸雖抑의 依然保合

大株長短合併遲延

大阪株式市塲의 長短合併認可는 十五日부터의 合併은 絕望이오九月一日부터나될듯하다한다

實物前塲取引

▲大同電力新 一六〇 ▲川崎造船 四〇〇 ▲東京人絹 五八、五〇 ▲淺野 二新 一八、四〇 ▲鮮滿開拓 一三、一〇 ▲昭和人絹 三〇〇 ▲小野田세멘트 三三、一〇 ▲日本郵船新 三四、〇〇(取引高一、六〇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買氣一息이나 大變動이업고 內債는三分半十錢低가 顯著하얏다

甲五分利 一〇一、二五
二回四分利 一〇二、〇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三〇

市塲感

◯株…東新은 百二十一圓臺로앙버티고 東京後帝는二圓丁▲百二十圓을 賣叩하가開門을깨트리지못하얏스니 或다시反戾를보지모르나▲底固한듯도 것이 結局大崩의前提가아닐지?▲東新이 財界의바로메다로서의資格을 失하얏지만▲東新不動閑散이全般株界를 近日日氣가리陰鬱케하고잇다

◯米…霖雨後져우 二日間晴天이더니 今朝부터 다시曇天!旱魃이侵害한끄레 또水魔가 作戱하니 朝鮮의稻作被害가고 얼마나 至大할것을可知▲心術구진저天氣은 揚子江下流의低氣壓을 또朝鮮으로 吹送하는 모양이니 漲上加藉▲그래서來客賣地塲買의關係를가진 當地市塲은 今朝阪地의伸暢에도 依然反撥▲昨今政府米의拂下說이 일할날리어 强硬派의가슴을 서늘케하는모양인데 김치국만 마시는格이 아니될지몰으나

經濟界消息

◯殖銀副總裁, 理事不日內任命=殖銀에서는 十四日 株主總會에서 故植野理事의後任으로金子定三、伊森明治의兩氏를 候補者로 選擧하엿는데 今明間에 金子氏로任命될모양이다 그러고 副頭取에는 渡邊彌幸氏가 十四日附로써 不日 任命할터이라고

◯◯

中北朝鮮으로 大資本 大企業 集中이 行進曲에 조차 專賣局서도 北朝鮮에 煙草工塲 新設計畫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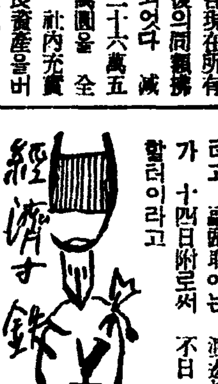
景氣 바로메다는 酒、草消費와 正比例 하니까

◯

加藤朝銀總裁는 東京서 有賀殖銀頭取는 京城서 各其總會席上 朝鮮의 躍進、好景氣를 放送

◯

어 好景氣와 朝鮮人 주머니속과는 어떤 關係가 잇는지 아리켜 주는사람이 업다



取引停止(八月十一日)

▲京城府本町通一丁目 一〇八番地 石輪興業所中京米作▲京城府黃金町通一丁目一九五番地藤井商太郎▲雜貨商京城府東大門町一八七番地金德天

上旬鐵道出貨

八月上旬의 局線出貨狀況은 降雨와農耕로出貨減少가撫招되어엇스나 木材, 野菜, 牛, 東洋, 白炭, 鐵石, 세멘트, 建築材料, 肥料等 依然堅調이며 前旬에 比하야 約四萬噸의減少인데 前年同期에比하야 一萬三百餘噸增加의 十七萬六千五十一噸이엇다고

東新의弱氣觀

東新은百二十圓을低價인것 二、二、二六事件, 떼마事件等으로 惡材料續入함인것

3、東株의의聯가 대단히 衰落되어 下鮮地이엄는것

4、東新過去歷史에 比하야 端悲觀時가 大槪買塲이것 等으로 底固한데잇는터이나 以上은 말하자면消極的으로 떠러지지안케다는 折辯에 不過한것 으로 市勢를積極的으로 사게할 材料는 업다

1、廣田政一新國策은 언제나 낫날지

2、陸相의强硬態度로 政局은危機를 버서나지못하고

3、東新自體로는 時世로 投機抑壓時代인만큼 當所株上塲禁止 取引所稅增徵 其他投機抑壓의 正說, 虛說이뒤석거頻出할때마다 動搖될素質이잇는것 等으로 人氣回復은 至難視되며 東新의 時代는 지나간듯하니 底堅한듯한 百二十圓 大關門도畢竟 깨어지고 말것이오 어듸서 던지 무엇이던지 動機가되어十圓幅의 崩落이잇슬危險性이 濃厚하다고 打診하는弱氣가잇다

今日財界(十四日)

◆米 (單位錢)

	今日正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三三、一〇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二等米	一七〇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止	前日比
東新	一二一、二〇	不變
東新	[illegible]	
日產	七八、五〇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大阪國債市塲

▲甲五分利一〇一、二五▲第三五分利一〇一、五〇▲二八年四分一〇一、一〇▲二回四分一〇二、八▲佛貨四分一九八、三〇

期米

天候不良

急騰

前塲反高

昨後塲阪地三十二圓二十錢止와 共히三十二圓十錢에 塲을알한當市塲은 今朝阪地初付三十三圓二十錢인 昨止同樣의 報導를 擲하고 上은 意外七十錢高로 塲始한後 阪地三十錢으로 二十六錢까지 小戾하엿다가 二十八錢에 止塲하얏슴을 伴하야 十九錢을最低로 二十四錢의 最高로 塲을止하엿다

後塲續騰

後塲은 三十圓三十錢에 寄塲後 三節三十錢에 六錢高로始塲後 六節三十四錢으로 伸拗이다가 結局三十四錢에 止塲하다

當地俄然頑强

天候의關係?

今朝阪地는 三十二圓二十二錢으로前節三十錢의 小高를示한後에는 更히頓伸치못하고 二十錢臺로反落하엿슴에反하야 當地는意外頑强하야 中限은六十錢臺로先限은 二十錢臺로反戾하야 動亂反撥의强勢를보이고잇다 中先兩限은 來客賣地塲買의關係도업지안커니와 大陸今月에入한後의 朝鮮天候는 日本內地好順의正反比로 霖雨를繼續하야 各河川의 洪水氾濫과 農作物의被害莫大로 얼마큼期正兩界의買氣를助長하여왓섯다 그래서또豪雨를豫來하는때에 買氣又一層熾烈할것은事實인데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한바에依하면 揚子江下流域의低氣壓은 北東으로 黃海北部의高氣壓은 東南東으로 進行함에따라 半島西側은 次第天氣가 惡化하야 今夜부터 中部以北은豪雨、東側은 大槪曇天으로驟雨의 곳이잇슬것이라고 하엿다 果然 又復豪雨를 豫來하는때는 更히 一高를 示하고야말것도갓다

疑問의拂下說

何時에解消?

目下政府米의 總所有高는 五百二十萬石으로 端境期에 漸次臨迫할때에 早晚間拂下할것이라는說이 濃厚하다 政府는 何等의 具體的發表가 업슴에도 不拘하고 今月十五日 全國稻作狀況이 判明됨에 딸아 政府米의拂下는 斷然코잇슬것으로豫想하며 一方으로는 不拂下說도업지아니하다 果然어느편의說을 信用하게될지 아즉疑問이어지아니한터인데 昨年十一月以降 公定價格에依한 政府米實却石數가 八十萬八千六百五十石에 達하엿다는 情報에依하면 現內閣의政治는 前日政黨時代와 달라서 廣政一新의 公平을圖하는關係上 入札에依한 大量拂下를하야 中間商人의 利益을與하지안코 糧米不足으로 公定價格에 依한賣却申請에딸아 斷然中에서拂下하는形式을 取하여왓슴으로 今後에도이러한方式으로 端境期의 需給不安을 緩和케하지안흘가한商談이多하다 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塲賣買

賣方=東京側地塲軟派地塲利喰
買方=朝鮮側於政地塲强氣側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保合으로依然市況은 活氣가 生하고固重한形勢이엇다

●三等三二、五〇 四等三二、三〇 ○一等白米一三四、〇〇

仁川不變

期米의小浮動保合을移하야 一般買氣不變이오市況閑散裡에保合이엿다 ◉三等三二、一五〇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一三四、六〇

釜山一息

日本內地注文薄으로 騰勢一息이나 價位는韓品側이 繼買하야 商談이 比較的進捗되모양이다 ◉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五

大邱不動

拂下如何로重點을두어 一般이 觀望的으로 動키는 稀薄하야 市況이 依히沈靜이나 大體보合이엇다 ◉三等三二、一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三三、三〇

群山强含

今朝三日本內地 競爭不良으로 入注中止狀態이나 天候不良으로 產地實物은全無이니 마市況은底堅한形勢를 示하얏다 ◉三等三二、八〇 四等三一、六五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焦付

定期米保合으로 買氣一般旺하야 保守로賣買가적으나 實物拂底로圖穩하야 市勢保合이엇다 ◉三等三二、八〇 四等三二、七〇 一等白米一三三、〇〇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期 米 東

株式 光皿

東益商店

金益證券 株式會社

株式 期米

柳來恒取引店

仁川本町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十三日
◆朝鮮銀行券 十三日
◆日本銀行券 十三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米國 十四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商品 十四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綿糸布
◆鍋屆粕沖價
◆鑛油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十四日

◆東京現株
◆朝取短期取組高
◆算定代引日步
◆朝取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短期
◆大阪短期
◆大阪長期

期米 十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市況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商品 十四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現物糖(8T)
◆海外砂糖
◆外子豆粕